

우리나라 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요인 연구 - 1945~1960년을 중심으로 -

박 길 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Korea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Park, Gill So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V. 女性服飾變化의 要因
I. 序 論	V. 結 論
II. 理論的 背景	參考文獻
III. 女性服飾變化要因의 社會文化的 背景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change on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and to survey the change of factors from the August 15, 1945 to 1960,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applying B. Malinowski's "Theory of Culture Change" which means an acculturation is the change's elements of the dress and its ornaments.

It is remarkable that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of Korean women after August 15, 1945 has a great change from the traditional dress of the thousands years.

Through the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merican democracy has brought many changes on Korean society.

Advancement of education, an society with developed economic life, and introduction of scientific skill have influenced on the women's way of thinking and a style of behavior and the view of value.

The acculturation, the supply of mass communication,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old institution, the change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system, the change of the point of valu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skill have greatly influenced on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Moder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of Korean women has the following developing procedure.

The Liberation from Japan on the 15th, of August, 1945, the stationing of America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returning of the oversea's brethern, and the mass communication have the direct and indirect contact with western civilization, and bring the occasion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dress of Korean women.

The increase of mass communication, such as radio, TV, newspaper, magazines and the frequent fashion shows showed fine design and practical western style dress to the women. This was the real beginning of the western style dress in Korea. By the increase of employ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 consumption of clothing and the adornments was increased, so that a wide variety of fashions was set, and numerous kind and form of dress came in.

As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omen students, their practical and free dress life demanded western style dres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the open-door policy of sex, public morals and traditional ethics became lax, and in this disordered society, indecent expose of the body was common.

By the different kin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form, fabrics, colors and patterns in clothes were much influenced and the hair style, make up, shoes and adornments were much influenced too.

As shown above, the change of the dress has the same connection with that of society and culture. This shows that the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represent clearly the cultural phenomenon of the society. In this respect, a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should be changed to the study of the various factors of the cultural change of the society.

I. 序 論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전 人類는 어떠한 形態로든 服飾을 着用하여 왔으며 服飾은 過去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勿論히 變遷되고 發達되어 왔다.

어떤 特정한 사회나 集團의 文化는 服飾과 人間의 服飾生活에 影響을 미치며 社會文化的 現

象은 服飾에 反映된다¹⁾. 즉, 文化는 社會의 技術的,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界 분야의 發展에 의하여 끊임없이 變化하고 어같은 變化는 사람들의 服飾에 뚜렷하게 反映된다²⁾.

우리나라는 8.15 해방과 더불어 日本 統治下의 間接적인 近代化 過程에서 탈피하여 西歐 文化의 受容으로 政治, 社會, 經濟, 教育, 文化, 價値觀 등 諸 領域에서 일어난 變化는 매우 심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背景은 現代 女性 服飾에도 直·間接적으로 影響을 미쳐 洋裝의 大衆化와 함께 급속하고도 다양한 變化 樣相을 가져왔다. 8.15 해방과 6.25 사변은 美國을 중심으로 한 西歐 文化와의 직접적인 接觸 過程의 계기가 되어 西歐 服飾의 무분별한 受容과 模倣을 가져와 女性 服飾은 韓服에서 洋裝으로의 變化가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8.15 해방 이후의 服飾 變化는 당시의 社會 文化的 상황과 매우 깊이 關聯되어 있고, 여러가지 要因의 복합적인 作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양한 服飾 現象의 變化 要因을 究明하기 위하여는 8.15 해방 이후의 전체적인 社會 文化的 상황과 體系的으로 關聯지어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服飾史에 대한 研究는 비교적 활발하고 폭넓게 研究되어 왔으나 대체로 服飾의 形態的인 特性과 그 變遷 過程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8.15 해방 이후의 服飾 變遷에 관한 研究로는 원영옥³⁾, 이경자⁴⁾, 백영자⁵⁾, 홍병숙⁶⁾, 김춘선⁷⁾, 김수정⁸⁾, 박영자⁹⁾ 등의 研究가 있다. 원영옥, 이경자, 백영자 등은 服飾의 일반적인 形態의 特性에 의존하여 논하면서 그 時代의 社會적 상황을 약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時代의 상황을 要因別로 구분하여 體系的이고 具體的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形態의 特性의 分析만으로는 服飾 變化의 전반적인 樣相을 糾明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한 社會의 服飾 變化를 社會 文化的 現象과 關聯지어 파악하는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8.15 해방부터 1960년까지의 女性 服飾을 對象으로 西歐의 現代 服飾이 어떤 背景과 要因에 의해서 우리에게 受容되고 變化되어 왔는가에 관심을 두면서 社會 文化的 背景과 관련시켜 女性 服飾의 변화에 미친 要因을 分析 考察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服飾의 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많은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 있기 때문에 外部의으로 服飾에 나타나는 社會 文化的인 現象은 매우 다양하다. 服飾은 물질 그 자체

1) 김진구, "복식과 사회",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4(1986), p.297.
2) Marilyn J. Horn & Lou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p.55.
3) 원영옥,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 국민대학교, 「국민대학 논문집」(1972), pp.393-415.
4)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서울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p. 477-488.
5) 백영자, "해방후의 복식", 상계서, PP.489-496.
6) 홍병숙, "우리나라 여성의상의 유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7) 김춘선,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8) 김수정, "1950년대 이후 한국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9) 박영자, "우리나라 현대여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지만 服飾 變化의 기저에는 그 담당 주체인 人間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人間の 內面的인 복잡한 것과 복합해서 함께 變化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相互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變化가 일어난다. 따라서 한가지 要因만으로 服飾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服飾 자체 안에서 服飾의 變化 要因이 되고 있는 價値觀, 經濟, 教育, 技術같은 要因들도 相互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服飾變化 要因을 어느 한가지 要因으로 분명하게 분리시켜 설명하기는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러한 特殊性 때문에 服飾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많으므로 相互 關聯의 으로 일어나는 變化 現象에 대해서는 중복될 때도 있을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1. 服飾과 文化와의 關係

人間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합하여 작게는 家庭을, 크게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共有된 文化에 의해 그 속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文化는 人類學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概念이면서도 人類學者의 견해에 따라 文化에 대해 수많은 定義들을 내리고 있다.

文化의 概念을 최초로 정의한 타이러 (E. B. Tylor)는 가장 포괄적이고 고전적인 定義를 내리고 있는데, 그는 “文化 또는 文明이란 지식, 信仰, 藝術, 道德, 法律, 慣習, 그리고 다른 모든 能力과 習慣들을 포함하는 複合적인 總體”¹⁰⁾ 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定義에서 그는 文化가 인간 고유의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文化는 非生物學的이며, 非遺傳的인 手段에 의해 傳承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린튼 (R. Linton)은 “文化는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적 遺傳”¹¹⁾ 이라 하였는데, 文化는 사회가 共有하는 生活樣式이기 때문에 개인의 出生과 더불어 타고 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學習에 의해 받아 들여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크로버 (A. L. Kroeber)는 文化를 “學習되고 傳承되는 反作用, 習性, 技法, 觀念, 價値의 總合,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유발되는 行爲”¹²⁾ 로 봄으로써 文化를 超有機體로 설명하여 文化의 流動性을 강조하였고, 또한 文化를 部族이나 民族이 주어진 條件에서 施行錯誤를 거듭하며 이룩한 삶 의 지혜라 하여 文化가 “歷史的 產物”¹³⁾ 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文化는 人間 고유의 것으로 人間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서 하나의 全體를 이루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學習되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共有된 모든 사회적 遺産이다. 文化는 歷史的 產物로서 遺傳, 變形, 共有, 學習, 傳達, 蓄積되는 것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變化한다.

服飾은 文化로부터 成長하고, 物質的, 사회적, 精神的 產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¹⁴⁾. 服飾 變化의 要因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事件들이 사회文化 전반에 걸쳐 內在하고 이러한 要因

10) E. B. Tylor,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 John Murray, 1871), p. 1.

11) R. Linton, *The Study of Man - An Introduction*,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Inc., 1936), p. 78.

12) A. L. Kroeber, *Anthrop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8), pp.180-181.

13) *ibid.*, p.253.

14)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op. cit.*, p.106.

들은 복합적이고 또한 복잡 미묘하게 關聯되어 相互 긴밀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技術的,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各 분야의 發展에 의하여 끊임없이 變化가 일어나면, 이 같은 變化는 사람들의 服飾에 뚜렷하게 反映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文化變動과 服飾의 變化사이에는 相互 關聯性이 있고, 服飾이 文化의 特性에 부합되므로 服飾은 하나의 작은 文化라고 할 수 있다.

2. 文化變動論

文化變動이란 사회가 그 사회의 文化패턴을 變化시키는 여러가지 方式에 관하여 언급하는 概念의 系統的 설명¹⁵⁾으로 사회조직의 變化를 포함해서 習慣, 思想, 價值觀, 觀念, 知識, 藝術, 科學, 技術, 哲學 등 文化의 모든 측면에서 일어나는 變化가 모두 포괄되고 있다.

사회학자 무어 (W. E. Moore)는 사회變動을 “사회 構造들의 有意味한 變化”¹⁶⁾로 定義하면서 사회구조를 사회적 行爲와 相互作用의 類型들로 규정하였고, 그의 定義 속에 構造의 다양한 표현들, 즉 規範과 價值와 文化的 現象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무어는 사회의 구조적인 變化가 사회규범, 價值觀과 文化的 產物에 미치는 影響까지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文化變動을 社會變動에 포함시키고 있다.

本 研究에서는 사회와 文化의 變動이라는 넓은 意味로 사용하면서 社會變動과 文化變動이라는 용어를 같은 意味로 相互 交換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文化變動에 관한 理論들은 學者마다 接近方法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論理的인 體系와 妥當性を 바탕으로 研究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회나 文化의 變動理論들은 그 變動의 類型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첫째, 社會 및 文化의 變動이 특정한 단선적인 方向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成長-衰退, 挑戰-反應과 같은 持續적이고 長久한 歷史的 周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循環論 (Cyclical theory)으로 할둔 (Ibn Khaldun), 슈팽글러 (O. Spengler), 토인비 (A. Toynbee), 소로킨 (P. A. Sorokin) 등이 대표적인 學者이다.

둘째, 사회文化的 變動이 文化 또는 人間 속에 內在하는 무엇이 있어서 사회 및 文化로 하여금 어떤 단계에 따라 成長 발전토록 한다고 보는 것으로 일정한 方向에로의 직선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進化主義 (Evolutionism)로서 콩트 (A. Comte), 스펜서 (H. Spencer), 타일러 (E. B. Tylor), 모건 (L. H. Morgan) 등이 初期 進化論者로 대표적이며, 화이트 (L. White), 스튜어드 (J. Steward), 살린스와 서비스 (M. D. Sahlins and E. R. Service), 렌스키 (G. Lenski) 등은 新進化論者로 유명하다.

셋째, 文化의 變化나 발전은 文化要素나 文化複合의 傳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傳播主義 (Diffusionism)이며 스미스 (G. E. Smith), 페리 (W. J. Perry), 슈미트 (W. Schmidt)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사회나 文化를 하나의 有機體로 보고, 文化의 過去보다 現在를 더 중요시하며 現在の

15) Evons Z. Vogt, "Culture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3, (New York : The 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68), p.556.

16) Wilbert E. Moore, "Social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4, (N. Y. : The 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68), p.336.

事項을 이해하기 위해 現地調査라는 方法을 통해 個別行爲나 사회적 慣習을 관찰하되 그것들이 사회의 부분 및 制度간의 相互關聯性에 관심을 둔 構造機能主義(structural-functionalism)와 構造主義(Structualism)가 있다. 構造機能主義는 말리놉스키(B. Malinowski), 레드클리프-브라운(A. R. Radcliffe-Brown)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으며 構造主義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가 대표적이다.

다섯째, 1960년대 후반부터 주로 經濟에 관심을 두고 마르크스의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의 구분에 관한 概念을 도입하며, 이들 構造間的 葛藤으로부터 變動의 原理를 찾아보려는 마르크스주의(Marxism)가 있다. 고들리에(M. Godelier)와 메이야쑤(C. Meillassoux)가 대표적이다.

本研究의 對象時期인 8.15 해방 이후는 西歐와의 文化接觸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社會, 政治, 教育, 經濟 등의 면에서 西歐의 制度가 그대로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와 文化의 다른 부분에도 變化의 樣相을 띠게 되었다. 즉, 民主主義 制度의 도입으로 男女教育의 平等化가 실시되어 女性의 教育水準이 향상되었으며, 科學技術의 導入과 開發은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비약적인 經濟成長과 함께 國民所得의 向上을 가져왔고 이에 따른 價值觀의 變化도 가져왔다. 이와 같이 文化의 모든 要素들이 서로 相互關係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文化의 한 부분이 變化함에 따라 여러 類型의 要素들에서도 變化의 樣相이 나타났다.

服飾은 物質 그 자체이지만 變化의 기저에는 그 담당 주체인 人間이 존재하고 있어, 人間의 內面的인 複雜한 것과 複合해서 함께 變化가 일어나기 때문에 服飾의 變化는 한가지 要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要因의 影響을 받게 된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服飾에 나타나는 社會文化的 現象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服飾이 가지고 있는 變化의 特性에서 볼 때, 최근의 理論들보다 시간적으로 오래 되었지만 服飾의 變化에 미친 要因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構造機能主義者이면서 接觸에 의한 傳播의 過程을 인정하고, 傳播되는 단위를 文化의 單一 要素나 文化의 특질로만 보지 않고 制度 - 여러 類型의 要素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잘 規定되어 있고 統合되어 있는 制度 - 로 보면서 變動이 오로지 單一 要素들에서가 아니라 相互 關聯된 여러 類型의 要素들에서 발생한다는 觀點을 가지고 있는 말리놉스키의 文化變動論이 8.15 해방 이후 社會文化的 變化 現象과 잘 부합되므로 말리놉스키의 理論을 本研究의 분석틀로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말리놉스키는 文化變動의 概念을 어떤 사회의 既存 秩序, 즉 外面的인 것 뿐만 아니라 內面的인 것까지 모두 포함한 사회적, 精神的, 物質의 文明이 한 類型에서 또 다른 類型으로 變遷되는 過程으로 보았고, 文化變動은 接觸이라는 過程을 통해 일어나며 接觸過程에서 다양한 要素들로 혼합된 西歐 유럽의 制度가 아프리카로 傳播되어 들어옴으로써 그 사회의 지배적인 制度, 信念과 知識體系, 教育과 法律, 物質的인 道具와 그 使用, 經濟 등의 文化要素에 다소 빠른 수정 過程을 가져온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西歐의 制度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變化 現象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要素들에서의 變化가 相互 關聯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말리놉스키의 文化變動

17) B. Malinowski,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 An Inquiry into Race Relations in Africa*. ed. Phyllis M. Kaberry. (New Haven : Yale Uni. Press, 1945)

論을 研究의 분석틀로 적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8.15 해방 이후의 文化變動 要因도 文化接觸, 制度·經濟·教育·價值觀·科學技術에 있어서의 變化인 것으로 가정되며, 이 시기의 服飾 발달에도 이러한 要因들이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服飾變化에 미친 要因을 研究하고자 한다.

Ⅲ. 女性服飾 變化要因의 社會 文化的 背景

1. 文化接觸과 大衆媒體의 普及·擴散

社會文化的 變動은 무엇보다도 '異質性과 文化的 해체를 초래하는 接觸의 증가'에서 비롯된다¹⁸⁾ 고 한다. 文化接觸 (acculturation) 은 서로 다른 文化를 가진 개인들의 集團이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接觸을 가짐으로써 그 결과 그 集團들 중의 어느 한 集團 혹은 두 集團 모두의 본래의 文化的 類型들에 變動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現象들을 의미한다¹⁹⁾.

크로버는 "文化接觸이란 두 文化들 사이에 類似성이 증대되어 가는 變化의 과정이다."²⁰⁾ 라고 定義하고 있다.

한국의 8.15 해방과 6.25 사변은 西歐 文化와 직접적으로 接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 社會를 西洋의 思想과 物質로 만연되게 하고 文化에 總體的인 變革을 가져왔다.

8.15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文化는 歐美文化 일변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가장 많이 수용한 것은 美國 文化였다. 그동안 韓國人에 의한 美國 文化의 接觸 類型은 民主的 制度의 受容, 美國의 軍人 文化, 즉 GI 文化와의 接觸, 1950년대 이후 계속되어진 韓國의 엘리트 계층에 의한 美國의 엘리트 文化의 수용, 大衆媒體를 통한 美國의 大衆文化의 受容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²¹⁾.

미군을 경로로 해서 韓國人이 接觸할 수 있었던 'GI 文化'는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미국시민을 직접 개인적으로 接觸할 수 있었던 최초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경험이었으며 美國의 大衆文化가 受容되는 중요한 한 경로였다²²⁾.

한편 성장 단계의 社會에서 매스컴 (mass communication)의 기능은 국민들을 變化의 과정에 적용시키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로 轉換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러너 (Daniel Lerner)는 커뮤니케이션이 社會화의 주요 수단이고 社會화는 社會變動의 1차적 수단이라고 하였다²³⁾.

1945년 8.15 해방이 되자 新聞·雜誌가 속속 새로 발간되고 출판사도 雨後竹筍처럼 설립되었다. 1945년에는 人民報를 비롯하여 日刊新聞이 중앙과 지방을 합하여 70 여종, 주간이 60 여

18) Robert Redfield, *The Folk Culture of the Yucata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1), p.369.

19) Robert H. Lauer,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3), p.203.

20) Alfred L. Kroeber, *Anthrop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8), p.425.

21)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정음사, 1986), p.253.

22) 상계서, pp.257-258.

23) 김영모 외, 「현대사회학」, (서울 : 한국 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1983), p.327.

종이었다²⁴⁾.

1940년대 新聞에서는 여성난 記事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나 특히 1946, 1947년에는 여성난에 보다 많이 치중하여 독자대상을 부녀층에 둔 「婦人新聞」과 「婦女新聞」이 창간되었다²⁵⁾.

雜誌의 경우도 해방 후 50 여종에 이르는 雜誌가 연이어 창간됨으로써 雜誌의 全盛時代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女性誌로서 「女性界」(1953.12), 「女苑」(1954.10) 등이 창간되어 여성 교양자로서 生活文化의 創造와 普及를 선도함으로써 雜誌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²⁶⁾.

국내 라디오 放送局의 개국과 1955년 4월 AP, UPI, TNS, REUTA 등 外信의 開設로 뉴스를 비롯한 국제정보의 전달이 다양하고 迅速하게 됨으로써 情報提供의 폭은 국내적인 것에서 국제적인 규모를 띠게 되었다²⁷⁾.

1956년에는 TV 放送기제를 설치하고 5월 12일부터 3일간 시험방송에 들어갔는데²⁸⁾ 그 당시 장안에는 TV 放送이 큰 화제거리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²⁹⁾.

2. 經濟的 條件의 變化

8.15 해방 이후 1953년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우리나라 經濟는 政治的 사회적 혼란과 경제질서의 단절로 인하여 격심한 인플레이의 소용돌이 속에서 停滯와 不安定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1950~1953년간의 6.25 사변 중에는 이와 같은 經濟的 혼란이 더 한층 격심하였다³⁰⁾.

그러나 6.25 사변의 커다란 피해와 인플레이의 누적 過程은 美國 및 우방 國家의 援助에 의해서 점차 극복되어 휴전 이후 戰災 復舊期에 들어와서는 다시 安정의 土臺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휴전 이후인 1954년부터 ICA (국제협조처) 원조가 본격화하여 經濟安定과 産業復興에 기여하였다³¹⁾.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의 혼란과 6.25 사변으로 말미암은 生活의 어려움은 집안 일이나 農耕 社會적인 生産活動 밖에 모르던 女性들은 점차 社會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能力을 발휘하면서 견고히 社會에 진출하였는데³²⁾, 특히 가사에 종사하던 많은 女性, 즉 非經濟活動 人口가 經濟活動인구로 生産資源化 되어가는 것으로 변모되었다³³⁾.

이와 같이 6.25 사변은 무력했던 어머니들이 家庭밖에서 經濟的인 活動을 하고 슬기로운 판단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그녀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어머니들은 經濟的인 必要性에서 뿐만 아니라 취미와 能力을 발휘하기 위해서 職場으로 進出

24)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서울 : 대한출판문화협회, 1986) p.31.

25) 한국신문연구소, 「한국신문 백년사료」, (서울 : 한국신문 연구소, 1976), p.295.

26) 고연기,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성사, 1984), pp.28-31.

27) 박기성, 「한국방송문화연구」,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5), p.200.

28) 박기성, 전계서 (1985), p.323.

29) “텔레비전 12일부터 방송”, 「조선일보」, 1956년 5월 12일. “텔레비전구경-새로운 시대는 왔다”, 「조선일보」, 1956년 5월 18일.

30) 한국사회연구회, 「한국사회의 연구」, (서울 : 형설출판사, 1975), p.134.

31) 상계서, p.135.

32) 이옥수, 「한국근세여성사회 (하)」, (서울 : 규문각, 1985), p.289.

33)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서울 : 일조각, 1982), p.310.

하고 地域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團體와 團體活動에 參加하게 되었다³⁴⁾.

또한 戰爭으로 인한 住宅을 비롯한 제한 시설의 파괴, 戰爭 未亡人, 戰爭孤兒, 避難民問題, 女性問題 내지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특히 避難民, 戰爭 未亡人과 孤兒 등의 보호를 위한 組織的 活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많은 女性團體들이 새로 조직되었다.

여성단체중 中央婦人會 (1953년 5월 설립)는 戰災家族, 軍警遺家族, 기타 불우한 女性들의 技術習得과 직업보도 및 民間 사회사업을 중요 事業目的으로 하였다. 에덴부녀회 (1954년 7월 설립)도 軍경유족 및 기타 불우한 부녀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技術習得과 特殊 家內手工業을 보급 장려하여 生産業 參與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女性的 經濟的 自立과 地位向上 및 生活安定을 기할 목적으로 주요 活動을 하였다³⁵⁾. 이리하여 50만이 넘는 미망인과 家長을 대신하는 女性的 經濟活動은 상당히 활발하였다.

그 동안 女性教育의 向上과 특히 6.25 사변을 계기로 한 自覺, 經濟的 緊迫感과 職業女性에 대한 社會의 再認識, 戰爭 未亡人에 대한 國家의 직업보도 施策, 또한 勞動法에 의한 男女 차별대우의 금지 등으로 女性的 社會적 地位가 높아짐에 따라 女性的 職場進出은 매년 增加 一路에 있었다.

3. 教育制度的 變化

軍政期間동안은 美軍政 當局에 의하여 學校教育이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教育은 日帝治下 및 제 2차 세계대전의 戰時 體制 下에서의 教育과는 달리 民主主義的인 차원에서 실시된 教育이었기 때문에 성격상 크게 달랐다.

新生 民主國家를 위한 教育理念和 教育制度를 討議·制定하였는데, 이 때의 教育制度 改革의 主要方向은 「教育기회의 均等化」와 「教育行政의 地方分權主義와 業績主義 精神의 定着化」였다. 教育기회의 均等化를 실현하기 위해서 美軍政은 初等教育의 義務制度和 男女共學을 法制化 하였는데, 특히 한글을 매체로 하는 普通教育의 義務化와 普遍化는 女性人口에게도 똑같은 教育過程에 參與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³⁶⁾.

그리고 憲法 제 16조에 “모든 국민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³⁷⁾ 라고 하여 女性에게도 男性과 동등한 教育기회를 法律로서 정하고 있어 學校教育의 기회가 均등하게 개방되었다.

이 때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이른바 「國大案反對」라는 사건으로 진통을 겪은 國立 綜合大學校가 탄생한 것과 民主國家에서 教育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른 教師養成機關으로 男女共學인 師範大學의 設立을 들 수 있다. 公立 외에 私立 사범대학이 발족한 것도 이 때부터인데, 이 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과 수도여자사범대학 (처음에 초급대학이었다가 4년제로 승격됨)이 그것이다³⁸⁾. 公立 師範學校의 경우는 文敎部가 教育의 男女均等化를 위하여 國民學校와 專門

34) 정요섭, “한국여성의 가치관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연구소, 「아세아 여성연구」, 19 (1980), p.55.

35) 보건사회부, 「부녀행정 40년사」, (서울 : 보건사회부, 1987), pp.197-198.

36) 황원영,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p.359.

37) 「육법전서」, (서울 : 정양사, 1962), 헌법, p.3.

38) 한국교육사연구회, 「한국교육사」, (서울 : 교육출판사, 1986), pp.364-365.

大學은 물론 中等學校에서라도 男女共學을 실시할 계획으로 義務教育 실시에 앞서 國民學校 敎員不足에 대체하기 위해 서울과 개성에 男女共學의 公立師範學校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경기사범과 개성사범이 그것이며 모두 初級 男女中學 (3년제)을 卒業하고 入學하는 3년제 學校였다³⁹⁾.

日帝 植民地 治下에서 經濟的인 與件과 教育기회의 制限·抑壓에서 해방케 된 8.15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教育人口는 6.25 사변을 계기로 오히려 가속도로 증가하였다⁴⁰⁾.

4. 價値觀의 變化

한 사회의 構造와 文化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회성원의 價値觀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價値는 한 사회의 文化體系의 一部로서 그것들을 지닌 人間·時代·狀況에 關聯되는 것이므로 價値는 우리의 生活·時代·環境이 變化함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다⁴¹⁾.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 급격한 사회·經濟發展과 아울러 教育기회의 확대로 女性意識의 變化가 일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價値觀은 父子繼承을 통한 家族의 永續性과 家中心 思想에 기반을 둔 철저한 家族主義的 價値觀이 전통사회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1945년 8.15 해방 이후에는 女性이 家夫長的 權威主義와 集合體 위주의 家族主義로부터 하나의 人格의 主體 내지 個體로서의 平等과 個性을 강조하는 民主的이고 個人主義的인 방향으로 변모되어 女性의 正體를 둘러싼 價値意識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文化接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美國은 거의 일방적으로 南韓에 자기들의 民主主義를 移植하는 때이기도 하였다.

解放과 더불어 女性들은 새로운 西歐 理念에 접하게 되었는데, 즉 해방과 동시에 미국식 民主主義가 怒濤와 같이 밀려와 우리 국민 전체에게는 民主와 自由라는 선물을, 그리고 女性들에게는 男女平等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안겨 주었다.

해방 그리고 建國과 더불어 헌법상으로 보장된 自由 民主主義의 政治體系가 성립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女性의 政治參與와 평등한 地位가 부여되었다. 일반적으로 民主主義的 理念의 확산도 教育과 政治過程에서 일어났으며⁴²⁾ 이미 1950년대 말에 이르자 사회적으로는 教育의 보편화를 통해 民主主義的인 自由와 평등과 權利에 대한 自覺이 일어났다⁴³⁾.

한편, 8.15 해방 이후 미군이 南韓에 진주하여 韓國사람들에게 가장 크나큰 影響力을 미친 것은 그들의 풍요한 물질문화에 의한 물질주의적 價値指向이라 할 수 있다. 虛榮과 금전욕에 눈이 어두워 자유로운 生活을 즐기려는 女性들의 풍조가 洋風을 模倣하고 虛榮과 享樂에 치우치게 하였다. 이 傾向이 結婚生活을 하는 가정 주부들에게도 影響을 미쳐 자녀와 家庭生活에 무책임한 소위 '自由婦人'형의 여성상이 대두되어 사회적 非難의 對象이 되었다.

39) 「동아일보」, 1946年 5月 25日.

40) 한국교육 30년 편찬위원회, 「한국교육 30년」, (서울: 문교부, 1980), pp.26-27.

41) L. J. Riebel, "Philosophy of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52, No.16 (1960), p.117.

42) 이은숙, "여성가치 의식의 변화와 전망", 사회과학연구소,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200.

43) 김대환, "6.25동란 이후 정치 엘리트의 의식 변화",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해방 40년 한국현대사 회사의 재구성」,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85) p.38.

과격한 生活의 變化로 오랫동안 과묵하고 웅조렸던 女性에게 먼저 환영을 받게 되어 衣裳이 화려해지고 思考가 자유로워지고 接觸이 잦아지고... 이런 變化조류에 휩쓸려서 女性들은 결국 自己意識을 실각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⁴⁾.

戰爭은 필연적으로 人間으로 하여금 그 生活方式를 개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 思考方式에까지도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것이 일수다⁴⁵⁾. 미국에 의하여 傳播되어진 物質文化 내지 物質主義의 價値觀은 戰爭을 통하여 굶주림에 허덕이는 극한적 狀況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韓國 사람들의 規範文化 내지 儒敎의 價値觀을 압도했던 것이다. 戰爭기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빚어진 아메리카니즘은 급기야 奢侈와 風紀紊亂 가져오고야 말았다⁴⁶⁾.

시장에는 여성용 奢侈品이 범람하였고 그것도 사시각각으로 변하여 今日的 奢侈品이 明日에는 舊時代에 속하는 物品으로 변하여 재빠른 謀利公들 까지도 歎聲을 發했다. 여성들은 外樣을 갖추기에 분주한 반면 內的 生活의 向上을 위하여는 전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은 한층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음의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 精神의 糧食을 위하여서나 실질적인 生活의 向上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努力도 하지 않으려 한다. 설혹 大學의 문을 찾는 이가 있어도 참다운 眞理를 찾고자 하는 이보다는 빛 좋은 蠅빛을 찾기가 바쁘고 結婚을 희망하나 착실한 家庭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화려한 꿈에 잠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 이러한 불건전한 精神狀態는 필연적으로 女性의 生活를 함정에 빠뜨려 병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⁴⁷⁾

이와 같이 50년대에는 價値觀의 變化가 性道德의 紊亂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6.25 사변은 韓國 사회와 文化에 총체적인 變革을 가져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西洋的 思想과 物質主義가 만연되었다.

이 가운데는 性開放, 家族主義 崩壞, 女性의 사회진출 등 새로운 價値에의 노출도 포함되며, 戰時의 사회혼란은 갖가지 風紀紊亂을 관용하는 일종의 아노미(anomi)를 초래하게 되었다.

5. 科學技術의 發達

해방 직후 美軍의 진주와 軍政, 海外同胞의 대거 歸國으로 비로소 우리의 服飾은 西歐化가 促進되었으나, 이 시기는 輸入服地와 美國 援助物資가 主從을 이룬 만큼 기형적이며 무질서한 것이었다. 또한 6.25 사변은 服飾文化의 기본마저 상실케 되어 이 때의 衣生活은 고작 救護物資로 들어오는 몸에도 잘 맞지 않는 헌 옷가지들 밖에는 없는 窮乏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갑자기 洋裝婦人들의 수가 증가되어 오늘날 洋裝이 大衆의 生活 속으로 급속도로 파고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사회의 安定과 더불어 外衣의 需要가 增加됨에 따라 서울 南大門 市場에 4~5개의 소규모 既成服業體가 설립되어 성인복이 既成服으로 生産 供給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때의 既成

44) “과담회-棄兒와 여성과 윤리”, 「경향부인」, 1950년 5월號, p.31.

45) 李奉來, “有閑婦人論”, 「여성계」, 1954년 3월號, P.31.

46) “마음의 再建譜-동란의 私生兒! 만연된 사회악을 驅逐하자”, 「동아일보」, 1953년 8월 20日.

47) 방순경, “여성과 혁명”, 「신천지」, 1953년 12월號, p.123.

服業體가 설립되어 성인복이 既成服으로 生産 供給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때의 既成服은 施設의 未備와 生産技術 등의 부족으로 品質이 극히 불량했으며, 사이즈가 잘 맞지 않고 體系化되어 있지 않아 既成服에 대한 신용도가 없었다⁴⁸⁾.

한편, 韓國의 纖維産業은 1917년 조선방직(株)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1919년 경성방직(株)이 民族資本에 의해 설립되면서 점차 綿紡織工業이 기계화되어 갔고 견직기도 도입되어 衣料産業으로서 纖維産業의 近代의 공장생산체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⁴⁹⁾. 한편, 染色技術은 纖維製品에 附加價値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纖維製品의 高級化에 가장 핵심이 되는 技術分野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染色産業은 해방 후에 'COSA'라는 染料販賣代理店이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⁵⁰⁾.

IV. 女性服飾 變化의 要因

1. 文化 接觸과 大衆媒體의 普及·擴散이 服飾에 미친 影響

1) 衣服

(1) 服飾의 西歐化

文化接觸의 원인인 戰爭이 文化의 傳播를 가져오는 要因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文化傳播가 服飾의 變化를 일으키는 要因이라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과 6.25 사변에서 그 現象을 찾아볼 수 있다.

UN의 기치아래 모여든 16개국의 參戰은 우리의 閉鎖的이고 傳統的인 生活秩序를 開放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와 韓國에 상주한 미군들은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몰아왔는데, 한마디로 美國風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람은 政治, 사회제도에 民主化의 희오리를 불러 일으켰고 고루한 因習과 産業, 技術의 領域에는 近代化의 물결을, 文化와 生活洋式에는 洋式化 現象을 동반해 왔으며, 이로 인해 女性服飾의 西歐化를 促進하게 되었다.

8.15 해방 직후 日本人들의 歸國으로 각 生活用品의 生産이 중단되어 生必品の 품귀와 價格 폭등이 심했던 狀況이었으므로 미국과 아시아로 부터 纖維製品을 비롯한 각종 救護物資가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도착한 물품은 남녀용 衣類와 洋靴, 세-타, 스타킹, 고무신 등이었으며, 이 밖에도 미국 교회 구제회로부터 救濟品 衣服이 수송되기도 하였다⁵¹⁾.

한편, 美軍政下의 美軍 系統을 통해 流出된 각종 物資 즉, 落下傘 製造用 合成纖維로 만든 블라우스와 軍服을 改造한 洋服, 美國으로부터 수송되어온 救濟品, 그리고 密輸品 등이 사회에 만연되면서 무분별하게 西洋風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추종하는 女性들이 美軍部隊 周邊을

48) 정해영, “가격별에 의한 상표와 봉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Vol.2, 1 (1978), p.43.

49) 경방 70년 편찬위원회, 「경방 70년」, (서울: 주식회사 경방, 1989), p.67.

50) 상공부·한국 섬유산업 연합회,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 (서울: 상공부·한국 섬유산업 연합회, 1989), pp.405-407.

51) 「동아일보」, 1946年 4月 5日, 1946年 12月 22日, 1948年 3月 3日, 「조선일보」, 1947年 4月 3日.

중심으로 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당시에 미국에 대한 선망과 美國物資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

解放이란 시대적 狀況으로 보면 이 때의 服飾은 傳統 洋式으로의 회귀를 예상할 수도 있었지만 美軍의 進駐와 軍政, 海外 同胞의 대거 歸國, 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 등으로 최신 洋裝이 눈에 띄게 되었고, 오히려 服飾의 西歐化를 촉진하는 효과는 더욱 컸다.

8.15 해방이 되면서 日帝 末期에 주로 입었던 몸빼와 간단복을 벗어 버리고, 海外 同胞의 대거 歸國과 美軍의 주둔에 따른 軍需物資 닢으로 여성들의 衣服에도 큰 變化가 일어났다. 미국 등지로 부터 수송된 救濟品 즉, 軍服을 고친 洋服이나 合成纖維로 만든 블라우스의 범람으로 옷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救濟品을 입기 시작하여 洋裝 着用的 契機가 되었으며, 대중적인 洋裝은 일본인들이 작업복으로 입던 어두운 색의 바지와 블라우스였으며 특정한 유행없이 현 옷들을 고쳐입는 것에 불과하였는데 점차로 日本風을 탈피한 洋裝으로 바뀌어 갔다. 이 때의 洋裝은 세계 제2차 대전에 의해 전세계의 女性服飾으로 유행하였던 어깨에 패드를 높게 넣은 軍服調의 밀리터리 룩 (military look)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25 사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던 국내에는 다사 의류, 구두, 운동화, 모포 등의 구호품이 들어왔고, 구할 수 있는 옷가지는 겨우 救護物資로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⁵²⁾.

우선 옷이 없는 사람으로서 援助物資로서 보내온 救濟品 洋裝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무엇이든지 입는 것이 洋裝이라고 볼 수 있었고, 갑자기 洋裝 부인들의 수가 많아졌으며 피난생활에서의 하나의 服裝改革이 洋裝이 대중의 생활속으로 급속도로 파고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⁵³⁾.

전쟁 후, 洋裝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美國을 비롯한 서구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救護物資의 형태로 흘러 들어온 衣類를 우리 몸에 알맞게 고쳐 입게 되면서 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洋裝의 外樣이나 멋보다도 그 편리함에 세련되지 않은 양장 스타일을 즐겨 입게 되었다. 그 이후 편리함에 있어서 서서히 外樣 즉, 칼라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여성 고유의 미적 감각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하여 한국 여성들은 양장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즐기며 이용하게 되었다⁵⁴⁾. 6.25 사변 직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韓服과 洋裝을 모두 겸용하였지만 양장을 착용하는 數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6.25 사변 이후 복구 작업이 진전됨에 따라 사회도 점차 안정되고 해외와의 교류도 늘어 외국의 최신 유행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注文服 중심의 우리 복식이 외국모드의 직접적인 영향앞에 개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洋服化가 가속화 되어 갔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소개되지 못했던 해외의 유행 경향이 동시에 들어와 공존하였다. 외국 유행의 모방이 더욱 심화되어 한국의 洋裝도 서구의 流行을 따라서 급진적으로 발전해 갔다.

51) 「동아일보」, 1946년 4월 5일, 1946년 12월 22일, 1948년 3월 3일. 「조선일보」, 1947년 4월 3일.

52) “고마운 구호물자”, 「동아일보」, 1951년 2월 22일. “당신의 남은 옷을 한국으로 보내자”, 「동아일보」, 1951년 10월 1일. “衣類三百餘「고리」”, 「동아일보」, 1952년 6월 21일. “12萬封度구호품-우방서 한국제인에”, 「동아일보」, 1952년 12월 25일. “현옷등이 많이 왔다”, 「조선일보」, 1954년 1월 13일.

53) 서수연, “늘어진 관심, 세련된 스타일”, 「여원」, 1959년 8월號, p.88.

54) 김수복, “몸가짐 옷차림의 변화”, 「여원」, 1965년 8월號, p.178.

6.25 사변후 한국에 막대하게 수입되기 시작한 外國映畫는 여성의 양장화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후에는 맹목적인 유행 발생의 근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방종과 사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었다⁵⁵⁾.

「분홍신」과 같은 영화가 유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며, 6.25 당시 「애수」등의 영화에서 소개되었던 트렌치 코트 (trench coat) 가 국내에서 유행되는 등 코트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졌다⁵⁶⁾.

또한, 「무덤고 긴 여름밤」이 서울에서 상연되는 동안 어느 틈엔가 그 영화의 히로인이 입었던 의복이 유행되었다. 주로 單色의 드레스로 칼라 부분은 우단이나 비로드, 울저지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허리가 들어간 스타일이었다.

또한, 요정같이 청신한 모습의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가 유행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더블 스포츠 칼라(八자형)에 더블 투 버튼 (double two botton) 상의와 폭넓은 플레어 스커트에 앞의 이마를 가리는 짧은 머리가 많은 여성들에게 유행되기도 하였다⁵⁷⁾. 그래서 당시 명동에서 洋裝店을 경영하던 디자이너들은 부득이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많은 고객들이 자기의 個性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映畫에서 누가 입었던 바로 그 옷대로 디자인을 부탁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각종 大衆媒體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와의 교류가 늘고, 외국의 最新 流行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53년에 創刊되어 그동안 하나였던 女性雜誌 「여성계」와 1955년에 「여원」이 창간됨으로써 여성의 패션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더 많은 서구의 유행 服飾이 소개되었다. 특히 「女苑」지는 창간후 11월호에 여성의 사진과 해설이 실린 '모우드'란을 신설하여 독자들에게 유행 모드를 소개함으로써 西歐의 流行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다.

따라서 1955-1956년에는 H 라인, A 라인, Y 라인 등이 소개되었고, 1957년에는 소녀 록 즉, 여유있는 품에 허리는 끼게 입는 주름스커트가, 1957년 가을과 1958년 봄 시즌에는 발렌시아가 (Balenciaga)와 지방시 (Givenchy)가 발표한 슈미즈 드레스 (chemise dress)가, 1958년에는 디올의 애로우 라인 (arrow line)이 소개되었고, sack 드레스 (sack dress) 도 우리나라에 등장하였다.

1956년 5월부터는 TV도 방송되기 시작하여 女性의 패션계에 자극제가 되었다.

한편, 한국 女性服飾의 패션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한가지 요인은 서울 收復 후인 1950년대 후반기에 패션쇼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국내 최초의 패션쇼는 1956년에 서울의 동화 백화점 (현, 신세계백화점)에서 서라벌 양재전문학원의 코스튬 쇼 (costume show)로서 5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⁵⁸⁾.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노라노의 패션쇼가 반도호텔 다이너스티 룸에서 개최되어 패션쇼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服飾 및 유행 모드가 소개되었다.

1956년 노라노의 패션쇼에 이어 1957년에는 서수정의 衣裳發表會가, 같은 해 10월에는 최경

55) 상계서, p.178.

56) 「동아일보」, 1952年 6月 11日.

57) 김수복, 전계서, p.179.

58) 「서울신문」, 1956年 5月 30日.

자의 복장작품전이 「女苑社」後援으로 반도호텔에서 열렸다⁵⁹⁾.

이후로 1957년에 하기 노라노 패션쇼, 최경자 패션쇼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1950년대의 패션쇼의 개최 目的은 流行을 제시하기 보다는 洋裝을 보급하기에 중점을 두었고, 초창기 디자이너들의 활동에 힘입어 한국 패션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갔다.

(2) 韓服과 洋裝의 混用 현상

개화기 이후 西歐와의 직·간접적인 文化接觸으로 洋裝이 소개되어 오다가 8.15 해방을 계기로 양장차림을 한 해외동포가 귀국하고,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의 분위기가 親美化되어 洋裝 着用人口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洋裝이 우세해져 갔다.

이러한 결과로 韓服과 洋裝이 혼용되어 착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韓服 저고리에 몸배, 또는 한복치마에 스웨터나 블라우스를 착용하기도 하였고, 구두 속에 버선을 신기도 하였다. 韓服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나 그 당시에는 꼴불견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韓服에 퍼머넨트 머리 模樣을 하기도 하고, 코트가 등장하면서 부터는 한복의 겹옷으로 두루마기 대신에 코트를 착용하였으며, 韓服에 양산, 핸드백, 장갑, 슌 등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混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韓服 차림도 아니고 洋裝 차림도 아닌 모습이 나타났다.

(3) 新素材의 登場

해방 직후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 등으로 國民의 衣料生活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여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으로부터의 救護物資와 輸入服地로 충당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⁶⁰⁾.

섬유공업등 服飾文化의 자체기반이 미약했던 상황속에서 당시 洋裝材料로 사용되었던 것은 미군계통에서 유입된 사아지(serge)와 낙하산 감이었다. 그리고 「마카오 紳士」라는 당시 유행어에서 볼 수 있는 밀수·輸入服地와 각종 手織物, 交織物, 수자직, 호박직, 무표백 샷시지, 목면 보일 등의 미국원조 물자가 있었다⁶¹⁾. 이 중에서 밀수품인 마카오(macao) 服地와 빌로드 옷감이 당시 남녀 洋裝地의 최고의 상징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특기할 사항은 나일론의 등장으로 환도 후 본격적인 洋裝時代에 돌입하면서 이 땅에 나일론의 全盛時代가 도래하였다. 1953년경에 일본에서 처음 수입된⁶²⁾ 나일론은 빨아서 풀먹이고 다림질하는 등 일일이 손이 가야 하는 번잡성이 없었기 때문에 손이 덜 가고 질기다는 장점으로 저고리, 치마, 바지,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를 비롯하여 附屬品인 양말, 넥타이, 마후라, 장갑, 핸드백에 이르기까지⁶³⁾ 심지어는 런닝 셔츠, 슈미즈, 팬츠, 드로오즈까지 나일론 옷감, 나일론 제품이 각광을 받으며 衣料의 독불장군이 되어⁶⁴⁾ 삽시간에 보급·이용되었으며,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한 服飾의 變化를 가져왔다. 특히, 나일론 블라우스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반 투명의 흰 나일론으로 된 낙하산 천의 인기

59) 「조선일보」, 1957年 10月 1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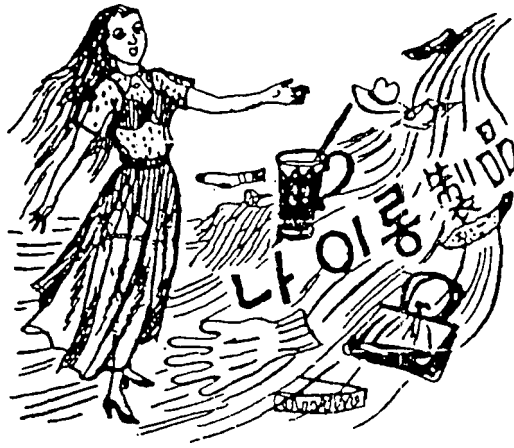
60) 대한방직협회, 「방협 20년사」, (서울: 대한방직협회, 1968), p.453.

61) 「조선일보」, 1948年 8年 14日.

62) 코오롱 20년사 편찬위원회, 「코오롱 20년사」, (서울: 주식회사 코오롱, 1977), p.72.

63) 金蘭公, “모시와 나일론”, 「조선일보」, 1955年 7月 30日.

64) “나이롱제품-물심양면으로 좀먹는 허식, 몇만 내면 된다는 紳士淑女”, 「조선일보」, 1954年 12月 23日.



<그림 1> 투명한 나일론의 착용을 통해 노출한 모습

가 높았다. 속옷과 살갗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새 유행 (그림 1)이 타이트 스커트와 함께 유행의 물결을 탔다.

2) 머리 模樣과 머리 裝飾品

(1) 머리 模樣的 多樣化

해방이 되자 긴 스커트와 함께 퍼머넨트한 긴 머리 模樣이 流行하였다. 이같은 머리 模樣은 6.25 사변 때까지 계속되다가 전쟁이 끝난 후 세계의 패션이 계속 導入됨에 따라 우리나라 미용계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각종 머리 模樣이 매년 나타나 점차 다양해졌다.

1945~1946년경에는 어깨 정도 길이의 단발형 퍼머 머리에 앞머리를 세운 후래퍼 스타일 (flapper style)이, 1948~1949년에는 머리길이가 짧아지고 머리의 아랫부분에만 웨이브가 있는 세미 업 (semi-up) 스타일, 1951~1952년에는 푸들 스타일 (puddle style)이, 1953년에는 숏 헤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인 보이 (Italian boy)라는 西歐의 流行이 우리나라에도 流入되었다.

1954년에는 映畫가 여성들의 머리 模樣을 多樣化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 해에 상영되었던 미국 영화 '로마의 휴일'은 여성들의 의복에서 뿐만 아니라 머리 模樣에 있어서도 새로운 流行을 유발하였다. 이 영화의 주연인 오드리 헵번의 머리 模樣은 헵번형으로서 3~4년간 流行되었는데, 뒷머리가 짧은 쇼트 스타일이어서 뒷머리 模樣으로는 남녀 구별이 안되었고, 따라서 '뽕지빠진 할머니'라고 비꼬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1955년에는 포니 테일 (pony tail) 스타일의 긴 머리가 주니어 층에서 流行하였고, 1956년에는 겨울에 가리마를 한 가운데다 타고 이마를 장식하듯 머리카락을 살짝 훑날리거나 꺾을 하는 로맨스 스타일 (romance style)이, 1956년경부터는 부환형의 머리 模樣도 나타났는데

귀를 덮는 중단발의 지극히 여성적인 실루엣이었다.

1958년에는 스페인 帆船인 카라벨(caravel)에서 얻은 이미지로 옆머리를 부풀리고 뒷머리를 짧게 커트하여 부풀린 스타일이 등장하였다⁶⁵⁾. 1959년에는 스완 라인(swan line)이라 하여 머리의 量感이 적어지고 굽은 웨이브의 부드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머리형이 인기가 있었다.

또한, 이 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映畵의 影響으로 단번에 유행한 짧은 숏 커트형인 세실 스타일(cecil style)이 여름철 헤어 스타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新聞과 雜誌에는 계절별, 연령(학생, 직장인, 부인 등)에 따른 각종 헤어 스타일의 소개가 두드러지고 차림에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 손질법, 외국의 헤어 스타일 등이 소개되어 새로운 流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하나의 유행 스타일이 등장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방하여 획일적으로 유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머리 손질에 많은 도움을 주어 단정한 모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役割도 하였다.

(2) 帽 子

한국에서 과거에 착용되었던 帽子는 거의 외국제품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는데, 帽子를 착용하는 사람은 주로 연예인과 외국 유학생 일부층에 국한하였다. 이 시기에는 모자의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1956년도에 제작된 '길은 멀어도'라는 영화에서 여배우 김지미가 모자를 쓴 모습이 관객들에게 호감을 줌으로써 모자 착용의 호기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말에 들어서서는 帽子의 形도 더욱 다양해졌으며 그 착용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3) 化 粧

8.15해방 후 여성들의 化粧法도 서구를 모방하여 색조 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당시의 일반인들은 분화장에 눈썹을 그리고, 짙은 립스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는 화장을 西洋風을 따르는 속된 취향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비판도 높았는데, 그 당시의 化粧에 대해 좋지게 생각했음을 다음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눈썹을 그리는 것쯤은 보통지사 이지만 눈, 코, 입, 볼, 턱...이 다 색이 달라... 「제 색」 「제 模樣」으로는 행세를 할 수가 없는 模樣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화장이란 말은 잇서도 不化粧이란 말은 업스니...”⁶⁶⁾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여성들 간에는 밀수품의 汎濫, 당시에 상영된 외국 영화의 영향으로 어색한 西歐式 化粧이 계속 유행하였다. 1954년경부터 化粧에 대한 認識이 높아져 얼굴을 무조건 하얗게 화장하는 경향은 없어지고 부분화장에 중점을 두는 화장이 유행하였고, 色調 化粧은 점차 一般化 되어 갔다.

당시의 化粧品은 대부분이 外製였는데 화장품은 미군기지의 P.X.를 통해 유출되는 외제 화장품과 밀수품이 홍수처럼 밀려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65) 「경향신문」, 1958年 8月 30日.

66) 서울신문사, 「신천지」, (서울 : 서울신문사, 1946.5), p.154.

당시 밀수품으로 들어온 주요 日産品은 우테나 크림, 레도 크림, 쥬쥬, 미소노 백분, 모나 백분, 나이스 염색약 등이었다.

4) 신발 및 裝身具類

1940년대 후반기의 구두는 대체로 앞이 둥근 형태로 발등에 끈이 있는 模樣이나 옥스포드 스타일이 流行하였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양말에 단화를 신은 모습이 자주 눈에 띄며, 1950년의 콤파 스타일의 옥스포드 슈즈를 신은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림 2).

1950년대 초반의 구두형은 끈달린 短靴가 일반적이었고, 1950년대 중반에는 검은 색이나 흰색 가죽에 장식이 없는 단조로운 형이 대부분이었다. 1957년에는 구두의 앞코가 삼각형으로 되고 볼이 좁으며 뾰족한 굽에 쇠장식을 붙인 하이힐이 流行하였는데 1950년대 末로 갈수록 굽이 가늘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58년에는 펌프스형으로 코가 뾰족한 구두의 앞볼에 나비 模樣이나 버클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맘보바지 밑에 신는 뒷굽 없는 커터 슈즈(cutter shoes)도 流行하였으며 열 발가락이 다 나오는 샌들도 있었다. 낮은 구두를 바지 밑에 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하이힐을 많이 신었다.

구두 뿐만 아니라 핸드백, 목걸이, 브로치, 귀고리 등 장신구의 사용량도 점차 늘어났으며 종류도 다양해졌다⁶⁷⁾. 그러나 洋裝의 보급량에 비하여 양장의 완전한 착용법과 액세서리 선택



<그림 2> 옥스포드 슈즈(oxford shoes)



<그림 3> 검은 장갑

67) 서수연, “현대여성과 장신구”, 『부인경향』, 1950년 1월號, p.52.

은 아직 미숙하고 유치한 상태였다.

8.15 해방 이후 女性들은 핸드백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중간 크기의 백을 손에 들거나 팔에 끼고 다녔다. 가죽 핸드백은 주름을 많이 잡아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한 模樣과 사각형 등 다양하였고⁶⁸⁾, 1958년에는 특히 악어 가죽으로 된 핸드백이 등장하였다⁶⁹⁾.

파라솔도 여전히 애용되었는데 韓服이나 洋裝 모두에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日製나 美製를 사용했지만 1960년에 들어서서는 日製, 美製와 함께 국산 파라솔이 등장하였다⁷⁰⁾.

한편, 1950년대 중반에는 귀고리, 목걸이, 스카프 등의 착용이 늘어나면서 장갑도 유행하였다⁷¹⁾. 이 중에서도 검은 장갑 (그림 3)은 대단한 선풍을 일으켜 '검은 장갑 긴 손'이란 流行歌가 등장할 정도였다.

장갑은 1954년경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꽤 꾸준히 유행되어 1960년에는 레이스 장갑이 양장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되는 액세서리로 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2. 經濟的 條件의 變化가 服飾에 미친 影響

1) 衣服

(1) 洋裝의 大衆化

經濟的 諸般 條件은 다각적으로 衣服에 반영된다⁷²⁾. 社會가 産業化 되고 國民의 生活수준이 향상되면, 生活양식도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 西歐化 되고 이는 다시 服飾의 變化도 초래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傳統服飾은 禮服化되어 日常服에서는 많이 입혀지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⁷³⁾.

우리나라에서도 經濟的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해방 직후에는 대부분의 女性들은 재래식 韓服과 통치마 저고리의 改良韓服을 입었다. 그후 生活에 곤란을 느낀 女性들이 직업을 갖는 社會적인 진출이 있게 되고, 經濟的으로도 점차 안정되어가자 生活洋式도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 대중적으로 입혀지던 거추장스러운 치마, 저고리보다는 活動하기에 간편한 스타일의 洋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기에는 韓服보다는 洋裝이 점점 上位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경 18~45세 까지의 女性 1,716명중 韓服만 입는 사람이 24.5%, 양복만 입는 사람이 34.6%, 韓服과 洋服을 겸용하는 사람이 40%였다는 보고가 있지만⁷⁴⁾, 그 당시 우리나라 20~50세 까지의 성인 女性 중 1%만이 양장을 착용하였던 보고⁷⁵⁾와 1959년에는 “부쩍 늘은 양장 여름엔 60%, 겨울엔 40%”⁷⁶⁾ 라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68) 「서울신문」, 1959年 1月 24日.

69) 「동아일보」, 1958年 5月 18日.

70) 「조선일보」, 1960年 5月 10日.

71) 「여성계」, 1954年 6月號, pp.105-107.

72)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op. cit., p. 128.

73) Mary D. Troxell and Elaine Stone,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McGraw-hill, Inc., 1981), p. 17.

74) 이옥임, “양장을 중심으로한 한국여성의 복장형태분석”, 1963, pp.3-4, 유수경, 전개논문, pp. 206-207. 재인용

75) 「한국일보」, 1965年 8月 1日.

76) 「조선일보」, 1959年 1月 11日.

洋裝을 착용한 人口數는 더욱 늘어 갔다. 이 시기에 와서 40대 미만의 大部分의 女性은 洋裝을 하게 되었다.

(2) 衣生活水準의 向上

해방 후 2~3년 간의 시기에는 輸入服地와 미국 원조물자가 주종을 이룬 倅인 만큼 의생활은 기형적이며 무질서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 들어 해방 직후의 혼란했던 사회상도 차츰 政治, 經濟, 文化, 社會의 각 분야에서 질서가 잡혀가고 다소 안정되어 갔으나 예기치 않은 6.25 사변으로 사회에 수난과 침체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상은 衣服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일반 국민들은 가지고 있던 옷 몇가지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으며, 韓服 대신에 입을 옷이라고는 고작 구제품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표 1> 민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
(단위: 10 억원, %)

품 목 년 도	의류 및 기타 장신구	
	금 액	구 성 비
1953	41.2	12.2
1954	55.8	12.2
1955	100.1	12.4
1956	147.5	12.8
1957	157.5	11.5
1958	170.5	12.5
1959	191.5	13.3
1960	195.7	12.0

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연보」,
(서울: 한국은행, 1961).

이 시기의 衣生活의 수요는 겨우 對日, 對 마카오 밀수품과 구호품, 유출 군수품 등으로 최소한의 충족이 될 뿐이었다. 1950년대 중반 후에야 비로소 服飾界도 제자리를 잡아 갔으며 차츰 經濟的인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가정적으로도 의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표 1>과 같이 1953년도에 민간 소비지출 중에서 衣類 및 기타 裝身具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복비의 지출액도 <표 2>과 같이 1953년 이후 1960년에 이르기 까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민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 (1965년 불변시장 가격)

(단위: 민간소비지출 총액에 대한 %)

구 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음식물비	67.6	66.2	63.6	63.4	64.4	64.6	64.4	62.1
주 거 비	8.5	8.4	8.3	8.1	7.7	7.8	7.6	7.6
광 열 비	3.2	3.2	2.9	3.2	3.3	3.4	3.5	3.9
피 복 비	8.6	8.6	8.7	10.4	11.0	11.4	11.1	11.4
잡 비	12.1	13.1	13.2	13.9	14.2	15.1	15.8	15.0

자료: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통계연보」, (서울: 한국은행, 1968),
한국은행 조사부, 「조사월보」, (서울: 한국은행, 1969).

(3) 衣服의 多樣化

77) 석주선, "10년동안의 여성계의 변천", 「서울신문」, 1959年 12月 12日.

휴전 후 6.25 사변의 轉戰가 복구됨에 따라 사회의 안정과 經濟的인 조건이 나아지자 女性들은 服飾에 높은 關心을 보였으며 外國의 流行에도 민감해졌다.

따라서 어느 한가지 실루엣만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流行을 이루던 시대에서 여러가지 실루엣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流行의 時代로 바뀌게 되어 의복의 종류, 형태에 있어서 다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의복의 數量도 증가해 갔다. 즉, 투피스, 스커트,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코트, 수영복 등 여러 종류의 衣服이 등장하였으며, 한가지 종류의 衣服에 있어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공존하였고 이에 따라 衣服의 數量도 많아져 갔다.

이러한 현상을 衣服의 種類別로 살펴보면 우선 투피스의 경우,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해외의 流行 傾向이 동시에 들어와 共存하게 되었다. 1955~1956년에는 H 라인, A 라인이 導入되어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였고, 블레로 자켓도 등장하였으며, 1957년에는 하이 네크라인의 슈트가, 1960년에는 샤넬 (Gabrielle Chanel)이 발표한 샤넬 슈트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다.

한편, 스커트는 解放 직후 타이트 스커트가 유행하다가 1951년에 뉴·룩의 영향을 받아 우아한 여성적인 실루엣의 360도 플레어 스커트가 소개되었고 개더나 플리츠를 잡은 넓은 스커트도 등장하였다.

1955~1956년에는 合成纖維가 등장하면서 기계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 (accordion pleats skirt)가 대단한 旋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60년까지의 스커트는 개더, 플리츠 스커트, 플레어, 타이트 스커트 등 매우 다양한 스타일이 동시에 애용되었다.

블라우스는 스커트와 함께 착용되었는데, 1951년에는 一部層에서 퍼프 소매의 블라우스가 입혀지기도 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 칼라가 달린 평범한 형의 블라우스를 입었다.

나일론이 처음으로 수입된 1953년경에는 나일론 블라우스가 젊은 女性들 사이에서 旋風의 인 人氣를 끌었으며, 블라우스를 스커트 밖으로 내어 입는 오버 블라우스 (over blouse)도 봄, 여름, 가을에 자주 등장하였다.

원피스의 경우 1950년대 중반에는 타이트한 것보다는 日常服으로 스커트 부분에 플레어나 개더를 넣어 폭을 넓게 한 원피스가 많았다.

1958년에는 허리선을 완전히 해방시킨 새로운 스타일인 sack dress가 후반기에는 sack dress의 지나친 流行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이 웨이스트의 엠파이어 라인 (Empire line)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바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 대부분 통이 넓은 것을 착용하였으나 1957년부터는 새로 짧고 좁은 맘보바지의 流行이 시작되었다.

코트의 경우, 1948년에 통이 넓고 길이가 긴 플레어가 많이 들어간 빅 코트가 등장하여 가장 人氣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코트는 플레어형과 박스형이 共存하였는데, 플레어형의 코트가 주류를 이루었고 어깨로부터 서서히 플레어가 있는 코트도 많이 입혀졌다.

이 밖에도 6.25 당시 '哀愁'라는 영화에서 소개되었던 트랜치 코트 (trench coat)가 國內에서 유행되기도 하였고, 春秋用 스프링 코트 (spring coat)도 점차 많이 입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겨울철의 외출복으로 주로 애용되었던 코트는 經濟的 여건이 향상 되어짐에 따라 코트 한벌로 지내던 形편에서 벗어나 그 種類와 形態가 매우 다양해졌다.

1950년대 들어 다양한 洋裝의 보급과 함께 經濟的 안정성과 레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영



<그림 4> 수영복

복도 보다 普遍化 되어갔다. 水泳服을 입은 女性이 잡지표지 모델로 등장 (그림 4) 하였으며⁷⁸⁾, 서울 한강에는 수영하려는 人波가 몰렸고, 또한 여자 수영복을 貸與하는 營業도 성행하였다⁷⁹⁾.

3. 教育制度의 變化가 服飾에 미친 影響

1) 衣服

(1) 校服의 制定

8.15 해방 이후에 새로 조직된 教育制度 분과위원회가 남녀 구별없이 공통적으로 6-3-3-4제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女學校들은 1946년부터 새로운 교복을 제정하였다.

1946년에 淑明이 校服을 제정하였는데, 上衣는 여밈이 더블 (double)식이었고 하의는 바지로서 발목에 단추를 채우는 폭이 넓은 것

이었다. 色相은 上衣, 下衣 모두 감색이었다. 겨울과 봄,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바지 대신 감색 4폭 플레어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봄과 가을에는 백색의 긴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를 上衣로 입었고, 여름에는 백색의 짧은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었다⁸⁰⁾.

개정된 대부분의 校服은 플레어 스커트, 바지부리를 매지 않은 바지, 더블식의 상의, 백색 칼라가 달린 上衣 등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동덕은 1953년에 校服을 개정하였다. 고등학교 冬服은 주머니가 있고 단추가 넷이며 흰 칼라가 달렸고, 바지는 발목에 단추를 달았다. 중학생은 좌우에 주머니가 없으며 그 대신 가슴 원편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허리에는 벨트를 하고 둥글고 흰 칼라를 달도록 하였다. 夏服은 흰 옷으로 반소매였으며 下衣는 바지 대신 스커트를 입도록 하였다⁸¹⁾.

배화는 8.15 해방 후에도 계속 세일러복의 校服을 입다가 1954년 4월에 校服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校服은 중·고등학교가 같았는데, 中學校는 칼라가 둥글고 高等學校는 각이 지어 있는 것으로 구별하였다⁸²⁾.

女學生 校服은 주로 몸빼에서 6.25 사변 이후 스커트로 바뀌었고, 그 길이와 폭도 유행에 따

78) 「여성계」, 1954년 7.8월號.

79) 金基律, “한강백사장”, 「조선일보」, 1957년 8월 23日.

80) 숙명여자중·고등학교 편집위원회, 「숙명 70년사」, (서울 : 숙명여자중·고등학교, 1976), pp. 322-323.

81) 동덕여학원 (편), 「동덕 70년사」, (서울 : 동덕여학원, 1980), p.226.

82) 배화여자중·고등학교 (편), 「배화 60년사」, (서울 : 배화여자중·고등학교, 1958), p.486.

라 조금씩 달라져 갔으며, 겨울에는 바지를 입게 하는 학교도 생겨났다⁸³⁾.

8.15해방 후에는 女大生들도 校服이 제정되어 校服 차림의 여대생을 볼 수 있었다. 숙명여자대학은 여름철엔 타이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겨울에는 타이 블라우스에 플리츠 스커트와 테일러드 자켓 차림의 校服을 입었다⁸⁴⁾.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흰 블라우스에 플리츠 스커트와 자켓으로 구성된 校服을 입었는데, 改良韓服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改良韓服을 입는 경우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로 통일하였다.

(2) 服飾着用的 知識水準 向上

教育은 새로운 경험의 領域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流行에 따른 外觀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보다 증대시킨다. 男女教育의 平等化로 高等教育을 받은 여성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洋裝着用에 대한 관심과 상식이 많아져 갔다. 新教育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높은 교육열을 배경으로 여자대학생의 數가 증가하자 이들이 받아들인 서구의 새로운 활동적인 衣服은 여성복식의 洋裝化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流行을 先導하게 되었다.

이 당시 新聞의 문화면에는 가정란을 신설하여 女性에 관한 기사와 국내·외의 패션에 관한 제반 기사들을 실음으로써 일반 여성들에게 洋裝에 대한 새로운 關心을 갖도록 하였다.

1950년대 新聞에 나타난 家庭欄을 보면 여기에 실린 의복기사의 특징은 洋裝着用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라노의 '生活美의 創造'라는 신문기사는 해외유행의 소개만이 아니라 올바른 洋裝生活을 위한 정보,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인들의 服飾着用 수준을 한층 높여주는 데 貢獻하였다⁸⁵⁾.

또한 家庭란에는 衣服에 있어서 생활복과 사교복, 가정주부의 활동복, 임부복, 직장여성의 작업복과 사무복, 외출복, 비치웨어, 칵테일 드레스 등 用途에 따라 着用方法이나 常識에 대한 기사도 자주 게재되었다⁸⁶⁾.

이로써 服飾着用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 일반 여성들의 外貌는 점점 어색하고 세련되지 않은 모습에서 탈피해 나갈 수 있었다.

4. 價値觀의 變化가 服飾에 미친 影響

1) 衣服

83) 「조선일보」, 1982년 1월 5일.

84) 숙대 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 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68), pp.116-117.

85) "양장과 속옷", 「조선일보」, 1957년 8월 23일. "구두와 악세사리", 「조선일보」, 1957년 8월 30일. "양장과 포즈", 「조선일보」, 1957년 9월 12일. "양장과 선", 「조선일보」, 1957년 9월 26일. "가을과 스쓰", 「조선일보」, 1957년 10월 24일. "모피", 「조선일보」, 1957년 10월 24일. "넥타이와 스카프", 「조선일보」, 1957년 10월 31일. "색과 시루엘", 「조선일보」, 1957년 11월 7일. "후레트 바스드의 美", 「조선일보」, 1957년 11월 14일. "새로운 메이크업", 「조선일보」, 1957년 11월 28일. "파티와 옷차림", 「조선일보」, 1958년 1월 16일.

86) 「동아일보」, 1954년 11월 25일. 「동아일보」, 1955년 9월 9일. 「동아일보」, 1956년 3월 4일. 「동아일보」, 1956년 3월 18일. 「동아일보」, 1957년 8월 2일. 「동아일보」, 1959년 7월 2일. 「동아일보」, 1959년 7월 11일. 「동아일보」, 1959년 7월 30일. 「동아일보」, 1959년 8월 15일. 「동아일보」, 1959년 8월 20일. 「동아일보」, 1960년 7월 26일. 「조선일보」, 1960년 5월 24일. 「조선일보」, 1960년 8월 23일.

데, 이러한 現象에 대해 다음의 글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 時代는 露出 過多症 時代라기 보다는 露出 狂時代라고 하겠다... 실제로 변화한 거리에 살덩이 그대로 내어 놓고 활보하는 여인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요지음은 젖의 절반 정도는 예사로 노출하는가 하면 두개의 乳房의 홈사이로 내려다 보면 거짓말 없이 배꼽까지 보인다. 이렇게 급진적인 일로를 걷게 되면 얼마 안가서 乳房썸은 통째로 내어 놓고 다닐 것이고 젖에다 얼굴처럼 化粧까지 하게 안된다고 누가 단언할 것인가... 사실은 요지음도 化粧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사실은 「완피스」 위에도 젖꼭지의 위치를 알린다는 식으로 필요도 없는 붉은 단추를 달거나 꽃 혹은 부로치 등으로 裝置하여 두는 것을 볼 수 있다.”⁸⁹⁾

또한, 技術의 發達로 나일론이 등장하자 전시에 抑壓되었던 女性의 性的慾求를 만족시키려는 心理가 함께 작용하여 노출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났는데, 신체 부분의 노출현상 뿐만 아니라 衣服 着用을 통해서도 즉, 투명한 나일론의 着用을 통해 신체의 노출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음을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다.

“「나이롱」이 투명한 천으로 지향하는 것은 露出症時代를 말하는 것이다. 「나이롱」이 공기유통이 되지 않아도, 인체의 汚物을 흡수하지 않아도, 비위생적이어도 좋다. 하여간 나이롱의 투명률 백 % 이용하여 육체가 보이면 애용한다는 심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지음 무턱대고 노출만 시키면 知識人 같고 現代의 호흠을 하는 모더니스트가 된다는 심사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급진하여 가는 것이다. 어느 雜誌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년센스 하나를 보도한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全裸의 여인으로 풍기 문란죄로 구속하고 보니 사실은 나이롱을 입고 있었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급속도로 流行에 따라야 全裸의 여인을 볼 정도는 머지 않은 장래가 될지도 모르겠다.”⁹⁰⁾

한편, 衣服着用을 통한 육체의 강조 현상도 나타났는데, 그 예로 춤과 함께 젊은 세대의 반항심을 표현했던 새로운 時代思潮의 상징이었던 맘보바지가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타고 1955년에 일본을 통해 들어와 流行하였다⁹¹⁾. 이 바지는 맘보춤의 울동을 충분히 살리도록 고안된 것으로 양공주들이 먼저 입기 시작하였고 점잖지 못하다는 평판을 들으면서도 점차 일반 女性들에게도 着用되어 流行하였음을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다.

“... 젊은 女性들이 애용하는 「맘보」바지가 한창 流行이다. 양복바지 라기보다는 아랫내의를 입고 나왔다는 말이 알맞을 듯하게 몸에 밀착하고 깡똥하게 짧은 홀태바지인데 아마 肉體美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자는 의도인 듯하나 나 보기에는 영양부족증의 거위나 황새가 엉덩이를 흔들고 걸어가듯 것같이 보여 눈에 거슬린다...”⁹²⁾

89) 김용환, “나이롱 열풍시대”, 「신태양」, 1954년 8월號, pp.134-135.

90) 상계서, p.136.

91) 「조선일보」, 1957년 2월 6-8日.

92) 김성진, “當世服裝考”, 「신태양」, 1958년 5월號, p.250.

肉體露出이나 衣服着用을 통한 肉體美의 강조 현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例로 化粧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분방 했음이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눈섭을 그리는 것쯤은 보통지사 이지만 눈, 코, 입, 볼, 턱... 이 다 색이 달라... 「제 색」 「제 모양」으로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들은 東髮化粧은 물론이오 손톱이 벌써 송곳 가타지고 빨개져서 마치 쥐잡아 먹은 고양이 발톱과 같다. 먹다 남은 쥐고기를 씹고 다니는 줄만 알고 某女에게 덤벼들었더니 「이런 바보, 「츄-잉-꺼-므」하고 주둥아리를 열어제치는 것이었다...”⁹³⁾

(2) 物質主義와 個人主義 價値觀의 대두

① 虛榮과 사치현상

8.15 해방 이후 특히 6.25 사변을 거치는 동안 궁핍한 생활여건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국사람들은 미국의 풍부한 物質文化에 가장 먼저 魅了되어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을 띠었으며, 이러한 가치지향은 억제되었던 금전욕, 물질욕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女性의 地位가 형식상이나 평등하여졌다는 안도감은 女性에게 虛榮의 꿈을 꿀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였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이 느껴졌던 韓國 女性들은 화려한 생활 그것만을 보고 외면을 장식하고 새로운 향락의 생활을 模倣하기 시작하였고 女性은 허황한 꿈을 꾸며 虛榮된 생활을 시작하였다.

6.25 사변으로 생활의 주축을 잃은 부유층의 虛榮된 생각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階層에까지 파급되어 갔다. 따라서 순진한 女學生들까지도 악풍에 물들어 보기에 어색한 옷차림을 하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였으며 女性들은 생활의 중심을 잃고 破綻에 빠졌다⁹⁴⁾.

이로 인해 6.25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救濟品 衣服을 입었으나 일부층에서는 밀수 등을 통해 外國製의 사치스런 衣服을着用하는 傾向이 많았음을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다.

“...化粧品을 위시한 고급 「비로드」, 「레-스」, 「나이롱」, 「마카오」 양복지 등이 國際市場에 범람하고 비좁은 골목에까지 널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마카오」 산이 아니고 「비로드」나 「레-스」가 아니면 행세를 못할 지경이 되었으며... 洋服은 「마카오」 치마 저고리는 「벨벳트」 「레-스」 「양단」이라야만 紳士淑女의 옷차림이 된다...”⁹⁵⁾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西歐文化의 影響에 접하게 되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淸純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되어 밀수품으로 얼마나 사치스러운 衣生活을 하였는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밀수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맞지 않는 流行追求에 의해서도 사치현상이 나타났는데, 다음의 글에서 그 당시의 사치현상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

93) 최영수, “서울거리의 여자풍속도”, 「신천지」, 1946年 5月號, p.154.

94) 方順京, 전계서, pp.124-125.

95) “귀금속으로 몸을 치장”, 「동아일보」, 1953年 7月 16日.

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계도하려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다.

“還都 이후 서울의 거리는 해마다 사치와 流行이 심해지고 있어 월급쟁이 부인이나 또는 직장여성들은 도저히 그 사치의 流行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요즘 특히 빨간 구두와 검정 장갑이 流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사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빨간 구두는 보통 검정 구두나 노란 장갑보다 갑절이나 비싸며 검정 장갑은 일하는 부인이나 직장 女性에게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實用面보다는 단순히 裝飾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과 비실용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부인과 職業女性이 奢侈의 流行에 눈을 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적인 속에서 참다운 아름다움과 조화있고 균형잡힌 건실한 流行을 간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⁹⁶⁾

5. 科學技術의 發達이 服飾에 미친 影響

1) 衣 服

(1) 外 觀

우리나라 縫製工業은 구한말 갑오경장 이후 洋服과 西洋式 軍服의 着用, 유니폼, 셔츠 내의 着用 등 개혁의 影響을 받아 출발되었다. 6.25사변을 기점으로 衣生活方式이 韓服 着用 습관에서 간편한 西洋式 복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衣類産業이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주로 綿織物을 사용하여 내수용 衣類를 생산하는 가내 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공장으로 운영되었으며 軍納이나 官納을 위한 공장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⁹⁷⁾.

1950년대 부터 활발하게 서구 패션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洋服의 着用이 실용화 되었으나 이 때 생산 공급된 既成服은 衣服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성으로 중요시 되는 인체에 대한 科學的인 체계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업자들간에 자기 경험에서 얻은 좁은 識見으로 통일성 없는 치수를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이 때문에 신체에의 適正度 (fit)가 좋지 않고 봉제적인 측면에서도 직물과 실, 땀수, 바늘과의 관계, 직물의 曲面化 및 접착법에 관한 문제 등 과학적인 기술부족으로 실용 耐久性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솔기선에 잔주름이 발생하는 등 外觀상의 形態도 매우 세련되지 못하여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⁹⁸⁾. 이러한 既成服을 着用함으로써 자신의 品位나 인격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작용 등의 이유로 既成服을 기피하는 경향이였다.

(2) 衣 料

① 綿織物

해방 직후 政治 社會的인 혼란과 원면 수급의 차질, 기술자였던 일본인들의 귀국에 따른 후

96) “생활미와 유행미”, 「조선일보」, 1956年 4月 26日.

9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계서 (1985), p.363.

98) 임원자, “우리나라의 의생활의 문제점”,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Vol.9, No.2 (1971), 570-571.

유증으로 綿絲와 綿布의 생산량은 激減하였다. 국민들을 위한 衣類品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해방 직후 한 때는 미국 등지로부터 구호물자를 받게 된 것이었다⁹⁹⁾.

綿紡織工業의 재건은 195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외국의 원조자금도 도입하였다. 한편 정부도 綿紡織工業의 육성을 후원하고 1954년 초부터는 綿製品의 수입을 점차적으로 제한하여 綿製品의 자급자족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특히 1957년에는 재건이 완료되어 綿製品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였다¹⁰⁰⁾.

이로써 綿衣料의 자급자족은 물론 과거에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군용 綿製品의 일부도 납품하기에 이르러 국민의 衣料생활이 안정되었다¹⁰¹⁾.

본격적으로 製品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51년에서 1953년까지의 제1차 복구작업이 끝날 무렵부터였다. 이 때 나오기 시작한 주요 製品은 경성방직의 16 수와 20 수의 「해태표」 綿絲, 그리고 綿織物로는 「태극상」의 組布와 「천도표」의 內廣木 등이 주였다.

그리고 1957년경에 들어서자 30번수 국내 원사를 사용하여 학생복지 등 대중용 직물을 생산하였으며 포플린 등의 고급 綿織物도 생산하였고 나염가공 등으로 점차 그 질이 향상되어 그 수요도 증가되었다¹⁰²⁾.

이로 부터 해를 거듭함에 따라 施設의 계속적인 복구작업과 미국의 援助産業 기계비에 의한 新機械의 도입 등으로 1959년부터는 스프 혼방사 (23, 30, 33수: 불로초표)를 생산하게 되는 등 綿紡織工業의 發達은 본 궤도에 이르게 되어 이전보다 질이 향상되고 品目도 다양해졌다¹⁰³⁾.

그리고 매년 綿製品의 수요 기호가 고급화되어감에 따라 細番手 방출량의 증가가 이루어져 21番手 이상이 59.2%를 차지하였고, 또한 60番手 이상의 細番手絲의 방출에 있어서도 더욱 업계의 기술향상을 촉구하게 되어 80번수까지 방출하게 되었다. 織布에 있어서도 唐木, 玉洋木, 포플린, 기타 직물 등 細布織物이 증산되었다¹⁰⁴⁾.

② 毛織物

해방 후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준공되었고 野積되었던 기계시설이 설치되었다. 이 공장의 주요 生産品은 副蠶絲를 原料로 하는 견사 방적사(spun silk)로 우리나라에서 견방적사의 생산은 사상 처음있는 일로 그 의의가 매우 깊은 것이었다. 1944년 후반기에 이 공장에서는 '準梳毛絲'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방출하였다.

생산된 '準梳毛絲'는 綿(경사)과 準梳毛(위사)의 교직물을 생산하여 군복으로 봉제되었고, 이 무렵 홍콩의 중국계 상인들이 우리나라를 드나들면서 半製原毛 'wool tops'가 사상 처음으로 상륙되어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梳毛絲'를 생산했다. 梳毛絲는 이것을 위사로 사용하여 心地(양복)를 제직하였는데, 이것은 예상외로 인기를 얻어 양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梳毛絲 생산은 심지 제직에서부터 시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毛織物의 경우, 1950년대 이후부터 廣幅 織機의 도입, 織造 技術의 향상 및 근대식 가공 (폭

99) 대한방직협회, 「방직 20년사」, (서울 : 대한방직협회, 1968), p.453.

100) 대한방직협회, 전계서, p.473.

101) 「섬유년보」, (1961), p.8.

102) 「섬유년보」, (1957), p.47.

103) 趙英九, 「경성방직 50년」, (서울 : 경성방직 주식회사, 1969), p.255.

104) 「섬유년보」, (1961), p.22.

출가공기술, 전모 및 기모 가공기술, 모연가공기술, 엠보즈가공, 샌퍼라이즈가공, 양모 펠트화, 텍스춰리 신축가공) 등 技術 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량한 紡毛織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시켰고, 국산 복지의 향상으로 국산 포라로 만든 수트가 선보이기도 하였다¹⁰⁵⁾.

③ 絹織物

해방 후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건설 구조물을 준공하고 絹紡績 生産이 시작되었다¹⁰⁶⁾.

本絹織으로 춘추철의 紋官紗, 紋茶味紗, 熟庫紗등이 생산되었고 좀더 고급품으로는 紋虎珀緞, 뉴똥이 제직되고 있었다¹⁰⁷⁾.

새 施設의 도입으로 1954년경에는 이미 絹織物이 수요의 포화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業界의 부진상을 타개하는 돌파구로서 새로이 등장한 나일론 직물을 제직하게 되었다.

1959년에는 합성섬유 製造가 가능하게 되어 마이크론 (micron)이라는 상품명을 가진 비닐론이 생산되었고 이의 影響으로 여자의 비옷이 선보이기도 하였다¹⁰⁸⁾.

④ 編成物

메리야스공업계는 가내 수공업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그 生産量은 극히 적었다¹⁰⁹⁾. 1947년부터 臺環機, 兩面機, 양말기 등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 메리야스공업의 발전을 이룬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¹¹⁰⁾.

메리야스업계는 1951년부터 나일론 양말 생산을 시도하였고, 1954년에 성공을 거두어 외제에 손색이 없는 나일론 양말을 생산하게 되어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또 1955년에는 화섬사를 原料로 한 內衣類 생산을 시도하였고 1956년에는 화학사 장갑류를 처음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1957년에는 우리나라 메리야스업계가 처음으로 경편직물인 트리코트 (tricoat), 랏셀 (raschel) 지를 시장에 출하시킴으로서 신규 품종의 생산 분야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¹¹¹⁾.

(3) 색상 및 문양

해방 직후 몇년 사이에 국내에서는 纖維 織物의 染色 工소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으나 염료의 품귀와 전반적인 제반 技術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태였으며, 곳곳에 선염직물을 짜기 위한 原料絲를 染色하는 염색소가 생겨났다.

染色 業種은 침염이고 사용염료는 주로 황화염료, 직접염료, 염기성, 산성 및 산성 크롬염료, 견염염료, 황화 견염염료 등이었으며 섬유류는 綿, 비스코우스 레이온, 견사 및 아들의 織物이었고 주로 綿布였다. 염료는 일본의 大工場이 남기고 간 염료의 유출, 무역상들의 자유수입, 미군정청을 통한 보급품, 밀수입 등으로 충족시켰다.

중·소규모의 綿·레이온, 絹織業體들은 전부가 제직용 원사를 자가정련, 표백, 染色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機構, 機械는 그 나름대로 제작되었다.

순모에 대한 染色 가공은 1960년대 말부터 合成纖維의 혼방이 크게 보급되면서 染色 및 加

105) 공업진흥청, 전계서, p.302. 「섬유년보」, (1956), p.302. 「조선일보」, 1960年 7月 29日.

106) 한국과학기술원 (편), 전계서, p.86.

107) 「섬유년보」, (1954), p.38.

108) 「조선일보」, 1959年 1月 24日.

109) 상공부, 「상공백서」, (서울: 상공부, 1965), p.195.

110) 김의노, 「한국 메리야스공업 편람」, (서울: 대한 메리야스공업 협동 조합회, 1966), p.177.

111) 상계서, pp.177-180.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 (서울: 한국산업은행, 1966), p.320.

工方法과 시설이 점차 바뀌어 갔고 이것은 소모방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염색 가공기의 대수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유행색을 보면 1954년경까지 外來品의 범람으로 原色이 1955년경 부터는 西歐 패션의 影響을 받아 흰색, 분홍색 등 파스텔조의 색상이 그후는 베이지색, 황갈색, 소맥색(오클), 금다색, 커피색에 이르는 색상들이 사철 유행되는 현상이 1960년경까지 계속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곤색, 회색, 검은색, 그린색, 자주색 등 침체된 색들도 같이 유행하여 色相의 多樣化 현상을 가져올 정도로 염색기술이 發達되었다¹¹²⁾.

2) 머리 모양

현대적 머리 모양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방 후에는 김상전씨가 「現代美容學院」을 설립했고, 6.25사변 후에는 권정희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정화 고등 기술학교」를 설립한 것을 시초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6.25 사변 후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외국에 가서 연구하는 인원도 늘어났으며 외국의 美容 기구도 도입되어 美容의 큰 革新期를 맞이하였다¹¹³⁾.

8.15 해방 이후의 머리 모양은 곱슬곱슬한 퍼머넌트가 등장하였는데 머리에 웨이브(wave)를 주기 위해 사용된 기구는 쇠로 만든 등근 쉘(머리말이)로 그 안에 작은 숯덩이를 피워 넣고 머리카락을 지지는 매우 原始的인 방법의 가열퍼머가 행해졌다¹¹⁴⁾. 6.25 사변 이후에는 비약적인 새로운 化學藥品에 의한 콜드 웨이브 퍼머, 전기 퍼머 등 다양한 퍼머법이 보급되었다¹¹⁵⁾.

1950년대에는 이미 아이론(iron, 고데기)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¹¹⁶⁾ 불에 달구어진 아이론의 열에 의해서 頭髮組織에 일시적인 변성을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것이다¹¹⁷⁾. 이 당시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웨이브를 안으로 말아 고데를 한 소위 '우짜마끼'이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웨이브를 말은 '소도마끼'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美粧院이 늘고 고데에서 아이론의 사용으로 一般化하여 퍼머 머리 혹은 생머리를 불에 달군 아이론으로 퍼거나 굵은 웨이브를 주어 손질하였다.

3) 化粧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終戰과 더불어 일본인 회사들은 폐쇄되었고 일제하에서 化粧品을 취급하던 10여명의 장업인중 대부분은 조선 化粧品 協會를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化粧品 製造業을 계속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장업계에 뛰어들었는데, 즉 태평양화학(주)을 필두로 1946년에 합동 工業社, 美星堂 工業社 등이 발족하여 한국인에 의한 化粧品 製造業體가 설립되어 化粧品 생산이 개시되었다. 原料나 포장도 미흡하여 製品의 품질에서나 모양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순수 국내 기술로 化粧品이 생산되었다는 데 의

112) 배만실, 「의상유행의 浮沈」, 「여성동아」, 1968년 8월號, p.149.

113) 미용교재연구회 편저, 「종합미용이론」, (서울 : 유신문화사, 1986), pp.16-17.

114) 「조선일보」, 1970년 8월 15日.

115) 권정희, 「쪽진머리, 지금은 입체화장」, 「여원」, 1959년 8월號, p.92.

116) 「조선일보」, 1970년 8월 15日.

117) 미용교재연구회 (편), 전게서, p.41.

의가 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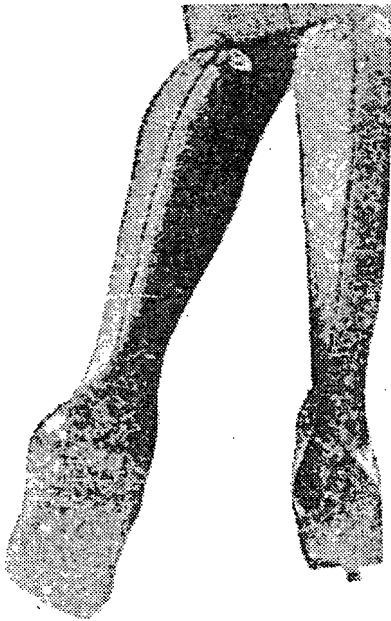
해방 이후 「천애사」의 「나나」化粧品, 「대륙화학」의 「젯트」化粧品, 「태양이화학」의 「피카몬드」化粧品, 「광명化粧品」의 「송옥」외에 「나리스」化粧品, 「피카소」크림 등 여러가지化粧品 會社가 등장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동보化粧品」은 국내 뿐만 아니라 日本, 滿洲, 대만 등 해외에까지 진출하였다.

우리나라 化粧品 공업은 수공업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신진 메이커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설로 품질개선을 통해 활발히 진출하였다¹¹⁸⁾.

女性 化粧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백분으로서 분백분과 수백분이 생산되었는데, 태평양 화학에서는 1958년 공기압 분리형식의 고성능 미분기를 독일에서 수입하여 분백분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어 프랑스 코티 상사와의 분백분 생산 기술제휴가 1959년 9월에 체결되었는데, 기술제휴에 의해 개발된 코티 분백분은 국내 化粧品의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소비자의 반응도 대단히 좋았다¹¹⁹⁾.

1958년에 獨逸에서 化粧品 연구를 하고 돌아온 당시 태평양 화학의 연구실장이었던 구용섭 씨가 지방산의 그리세린 에스테르를 합성하여 크림 등 유화제품에 응용함으로써 사용성, 안정성 등 유화제품의 품질개선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각 메이커들은 1950년대 후반이후 지금까지의 기초化粧品 중심에서 각종 유성, 건성 화운데이션을 비롯하여 립스틱, 콤팩트, 네일락카 등 메이크 업용 製品의 연구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림 6> 씬(seam)이 있는 스타킹

4) 신발 및 裝身具類

신발류는 휴전으로 6.25 사변이 종식된 1950년대 후반부터 신발업계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신발다운 製品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구두의 소재로는 소가죽보다는 가공된 에나멜 가죽이나 주름잡힌 가죽으로 製造된 것이 많아 구두 소재는 多樣化되어 갔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나일론 스타킹의 影響은 패션계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섬세한 나일론絲는 가장 적절한 스타킹의 原料로서 전세계 女性의 찬사를 받아가며 조직과 색상 등이 各樣脚色으로 추구되며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스타킹도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이 일본제의 견사 스타킹 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나일론 스타킹의 도입은 약간 늦었다.

한국에서 스타킹 생산공장을 처음 설치한

118)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편), 「한국장업사」, (서울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1986), pp.422-423.

119) 상계서, pp.449-450.

곳은 남영 나일론(株)이었다. 1957년에 西獨에서 생산 기계를 도입하였으며 美國, 日本 등지에서는 나일론絲를 수입하여 짜기만 하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품임을 명기할 수 있었고, 이때 생산된 스타킹은 씬(seam: 뒷줄)이 있고 길어도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7부 스타킹이 고작이었다 (그림 6).

V. 結 論

본 研究는 文化變動이 文化의 한 요소인 服飾發達에 미친 影響을 研究한 것으로 文化變動을 文化接觸에 의한 傳播의 과정으로 보고, 傳播되는 單位를 여러 類型的의 要素들이 서로 긴밀한 關係를 지니며 잘 統合되어 있는 制度로 보면서 변동이 오로지 단일 要素들에서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여러 類型的의 要素들에서 文化變動이 일어난다고 본 발리눔스키의 文化變動論을 적용하여 8.15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 女性服飾의 變化 要因을 유추 구분하여 고찰한 것이다.

8.15해방 이후의 韓國 現代 女性服飾은 수천년을 지속하여온 傳統 服飾에서 벗어나 새로운 變化와 發達을 맞이하게 되었다.

8.15해방 이후의 社會에서 文化接觸과 大衆媒體의 普及·擴散, 新制度의 導入과 舊制度의 改編, 經濟的 條件의 變化, 教育制度의 變化, 價値觀의 變化, 科學技術의 發達 등의 要因은 現代 女性服飾에 지대한 影響을 미쳐 다음과 같은 變化와 발달과정을 나타내었다.

첫째, 文化接觸과 大衆媒體의 普及·擴散이 服飾에 미친 影響으로는 8.15해방 후 美軍의 주둔, 海外同胞의 歸國, 大衆媒體의 普及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西歐와의 文化接觸은 韓國 現代 女性服飾 發達의 직접적인 契機가 되었다. 해외에서 귀국한 女性들의 옷차림과 미군의 주둔에 따른 軍需物資와 外國援助에 의한 衣類, 구두, 운동화, 모포 등의 救濟品은 당시의 女性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이로써 女性들의 衣服에도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 일제 말기에 주로 입었던 몸빼와 간단복을 벗어버리고 어깨에 패드를 높게 넣은 군복조의 밀리터리 룩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服飾의 西歐化가 促進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영화의 上映은 女性의 洋裝化에 박차를 가하였고, 맹목적인 流行발생의 근원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放從과 奢侈를 조장하는 근원이 되었다. 여러가지 실루엣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流行의 시기로 變化하게 되었으며 女性의 洋裝化가 促進되었다. 1950년대의 패션쇼의 목적은 流行을 제시하기 보다는 洋裝을 普及하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韓服과 洋裝이 혼용 着用되었는데, 韓服 저고리에 몸빼, 韓服치마에 스웨터나 블라우스를 着用하기도 하였고, 구두 속에 비선, 韓服에 하이힐을 신었으며, 韓服에 퍼머넨트 머리 模樣, 韓服에 코트 着用, 韓服에 양산, 핸드백, 장갑, 술 등을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着用하기도 하여 外觀上 한복차림도 양장차림도 아닌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밀수·수입금지과 미국의 원조물자로 나일론제로 된 낙하산 감의 新素材가 소개되어 8.15 직후에는 나일론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 겉옷은 물론 속옷과 양말, 핸드백에 이르기까지 나일론 옷감, 나일론 제품이 각광을 받아 삼시간에 普及·이용되었으며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服飾의 變化를 가져왔다.

한편, 1950년대에 新聞과 雜誌에는 새로운 머리 模樣의 소개가 두드러져 해방 직후에 퍼머

넉트한 긴 머리 模樣에서 후래퍼 스타일, 세미 업 스타일, 푸들 스타일, 이탈리아인 보이 슷 커트, 햄번형, 포니테일 스타일, 로맨스 스타일, 부환형, 스완 라인, 프린세스 스타일, 세실 스타일 등 다양한 머리 模樣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모자의 着用이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모자를 着用하는 사람은 주로 演藝人과 外國 留學生 일부층에 국한하였는데 여러가지의 베레모가 있었다. 化粧法도 西歐를 모방하여 색조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화장에 눈썹을 그리고, 길은 립스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였다. 부분화장에 중점을 두는 化粧이 流行하였고, 색조화장은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

둘째, 經濟的 條件이 服飾에 미친 影響에 있어서 女性들의 취업활동의 증가로 경제적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활동하기에 간편한 洋服이 大衆化 되었고, 또한 의류와 섬유, 장신구의 消費量이 급격한 증가 趨勢를 보이는 등 衣生活의 水準이 향상되었다. 外國의 流行에도 민감하여 어느 한가지 실루엣 만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流行을 이루던 시대에서 다양한 流行의 시대로 바뀌게 되어 투피스, 스커트,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코트, 수영복 등 衣服의 種類와 形態의 多樣化 현상이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衣服의 수량도 많아지는 傾向이었다.

셋째, 教育制度의 變化가 服飾에 미친 影響으로는 8.15해방 이후 신 教育制度의 導入으로 여학교들은 1946년부터 새로운 校服을 제정하여 校服을 着用케 하였다. 중·고생들의 대부분의 校服은 플레이 스커트, 바지부리를 매지 않은 바지, 더블식의 상의, 백색 칼라가 달린 상의 등이었다. 8.15해방 후에는 여대생들도 校服이 제정되어 校服차림의 여대생도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흰 블라우스에 플리츠 스커트와 자켓으로 구성된 校服을 입었으며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로 된 改良韓服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남녀교육의 平等化로 女性들의 教育수준이 향상되자 여자 대학생수가 증가하여 이들의 활동적인 服飾은 洋服化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流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價値觀의 變化가 服飾에 미친 影響으로는 해방 후 무비판적으로 들어온 西洋의 性開放 思想으로 傳統的 倫理觀과 도덕적 價値觀이 약화되고 무질서한 자유가 만연되어 자유분방한 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衣服着用에 있어서 신체를 지나칠 정도로 노출하는 傾向이 두드러졌고, 투명한 나일론의 着用에 의한 노출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손톱과 발톱에 지나치게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입술에도 빨간 립 스틱을 칠하는 화려한 化粧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양공주들이 먼저 입기 시작한 몸에 밀착되어 접잠치 못하다는 평을 받은 맘보바지의 流行도 가져왔다.

다섯째, 科學技術의 發達이 服飾에 미친 影響에 있어서 衣料는 직기와 諸般 技術의 發達, 새로운 衣料의 開發, 가공기술의 發達 등으로 衣料의 品質향상을 가져왔으며, 衣料의 多樣化와 생산량의 증가로 국민의 衣生活도 보다 풍부해졌다. 色相 및 紋樣은 염색기법의 導入, 새로운 염료, 조제의 開發, 염색기의 發達 등으로 다양한 色相이 구현되었고, 머리 모양에 있어서는 다양한 퍼머법의 普及과 커트 기술의 향상, 각종 미용기구의 導入 등으로 다양한 머리 모양이 등장하였다. 化粧品 工業의 發達에 의해서도 化粧品 種類의 多樣化를 가져왔고 品質 개선에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現代社會의 社會文化的 變化過程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服飾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端的으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文化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服飾史 研究는 단편적인 形態論的 發達史에서 탈피하여 더 나아가 文化變動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要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研究로 시도되어야 함은 물론 文化變動의 原因이 되는 要因 중 研究對象 時期와 場所에 알맞는 要因을 유추 분류하여 服飾을 분석하는 본격적인 研究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參考文獻

1. 권정희. “쪽진 머리, 지금은 입체화장.” 「여원」, (1959. 8). pp.91-93.
2. 경방 70년 편찬위원회. 「경방 70년」, 서울 : 주식회사 경방, 1987.
3. 경향신문사. 「경향신문」, 서울 : 경향신문사, 1958.
4. 고연기. 「잡지편집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성사, 1984.
5. 공업진흥청. 「품질백서 (하)」, 서울 : 공업진흥청, 1987.
6. 김대환. “6.25동란 이후 정치엘리트의 의식변화.”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해방 40년 한국 현대사회의 재구성」, 서울 : 도서출판 일념, 1985, pp.33-61.
7. 김성진. “당세복장고.” 「신태양」, (1958. 5). pp.250-253.
8. 김수복. “몸가짐 옷차림의 변화.” 「여원」, (1965. 8). pp.177-180.
9. 김수정. “1950년대 이후 한국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0. 김영모 외. 「현대사회학」,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3.
11. 김용환. “나이롱 열풍시대.” 「신태양」, (1954. 8). pp.134-137.
12. 김의노. 「한국메리야스공업 편람」, 서울 : 대한메리야스공업 협동조합회, 1966.
13. 김진구. “복식과 사회.”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4 (1986), pp. 295-304.
14. 김춘선.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15. 대한방직협회. 「방적월보」, 서울 : 대한방직협회, 1968.
16.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서울 : 대한 출판문화협회, 1963.
17. 대한화장품공업협회(편). 「한국장업사」, 서울 : 대한 화장품공업협회, 1986.
18. 동덕여학원 편집위원회. 「동덕 70년사」, 서울 : 동덕여학원, 1980.
19.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서울 : 동아일보사, 1945-1960.
20. 미용교재연구회 편저. 「종합미용이론」, 서울 : 유신문화사, 1986.
21. 박기성. 「한국 방송문화연구」,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5.
22. 박길순·김진구.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 「복식」, 15 (1990), pp.107-120.
23. 박영자. “우리나라 현대여성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4. 방순경. “여성과 허영.” 「신천지」, (1953. 12). pp.122-125.
25. 배만실. “의상유행의 부예.” 「여성동아」, (1968. 8).

26. 배화여자 중·고등학교 편집위원회. 「배화 60년사」. 서울 : 배화여중·고등학교. 1958.
27. 백영자. “해방후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서울 : 한국 문화재 보호 협회. 1982, pp.489-496.
28. 상공부. 「상공백서」. 서울 : 상공부. 1965.
29. 상공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계획」. 서울 : 상공부·한국섬유 산업연합회. 1989.
30. 서수연. “높아진 관심, 세련된 스타일.” 「여원」, (1959. 8). pp.86-90.
31. 서울신문사. 「서울신문」. 서울 : 서울신문사. 1959.
32.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해방 40년 한국 현대사회의 재구성」. 서울 : 도서출판 일념. 1985.
33. 숙명여자 중·고등학교 편찬위원회. 「숙명 70년사」. 서울 : 숙명여자 중·고등학교. 1976.
34. 신동현. “나이롱 열풍시대.” 「신태양」, (1954. 8). pp.136-137.
35. 원영옥.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 국민대학교 「국민대학 논문집」. 1972, pp.393-415.
36. 유수경.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37.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변천.”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한국의 복식」. 서울 : 한국 문화 재보호 협회. 1982. pp.477-488.
38. 이봉래. “유한부인론.” 「여성계」, (1954. 3). pp.86-89.
39. 이옥수. 「한국근세여성사화 (하)」. 서울 : 규문각. 1985.
40. 이은숙. “여성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해방 40년 가치의 식 변화와 전망」.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181-225.
41. 임원자. “우리나라의 의생활의 문제점.”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Vol.9, No.2 (1971), pp.569-571.
42. 임희섭.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정음사. 1986.
43. 임희섭.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7.
44. 정양사. 「육법전서」. 서울 : 정양사, 문교 1962.
45. 정혜영. “가격별에 의한 상표와 봉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2, No.1 (1978), pp.41-50.
46.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서울 : 조선일보사. 1945-1960.
47. 조영구. 「경성방직 50년」. 서울 : 경성방직 주식회사. 1969.
48. 최영수. “서울거리의 여자풍속도.” 「신천지」, (1946. 5), pp.154-155.
49. 코오롱 20년사 편찬위원회. 「코오롱 20년사」. 서울 : 주식회사 코오롱. 1977.
50. 한국과학기술원 편찬위원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달사에 관한 연구 : 섬유분야」. 서울 : 한국과학기술원. 1987.
51. 한국교육사 연구회. 「한국교육사」. 서울 : 교육출판사. 1986.
52. 한국교육 30년 편찬위원회. 「한국교육 30년」. 서울 : 문교부. 1980.
53.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산업」. 서울 : 한국산업은행. 1962.
54.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섬유산업 재도약의 길 : 섬유백서」. 서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1985.
55. 한국신문 연구소. 「한국신문 백년사료」. 서울 : 한국신문연구소. 1976. 「한국연감」. 1956-1957.
 56. 홍병숙. “우리나라 여성의상의 유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57. 황원영.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58. Appelbaum, R. P. 김지화 역. 「사회변동이론」.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87.
 59. Lauer, R. H. 정근식·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85.
 60. Horn, Marilyn J. & Lou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81.
 61. Kroeber, Alfred L. *Anthrop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8.
 62. Lauer, Robert H.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3.
 63. Linton, R. *The Study of Man-An Introduction*.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Inc. 1936.
 64. Malinowski, Bronislaw.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 An Inquiry into Race Relations in Africa*. ed. Phyllis M. Kaberr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45.
 65. Moore, Wilbert E. “Social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4. New York : 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68.
 66. Redfield, Robert. *The Folk Culture of the Yucata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1.
 67. Riebel, L. J. “Philosophy of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52, No.16. 1960.
 68. Troxell, Mary D. & Elaine Stone.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 McGraw-Hill, Inc. 1981.
 69. Tylor, Edward B.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 John Murray, 1871.
 70. Vogt, Evons Z. “Culture Chan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 Macmillan Co. and Free Press. 1968.